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자기애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서 은 혜

자기애성향, 신체 의식과 외모관리 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서 은 혜

인 준 서

서은혜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여성들의 자기애성향과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성들의 자기애성향에 대해 분류하여 신체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자기애성향 및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방법으로 설문지의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행복도, 자기애성향,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을 포함하였으며, 측정방법은 5단계 Likert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에 살고 있는 20-50대의 여성들이며,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자기애성향은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2개 요인을 사용하였고 신체의식은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신체관리노력’의 3개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외모관리행동은 ‘피부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의 6개 요인을, 화장의 심리적 효용은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 상승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 ‘자기가치 표현’, ‘타인에 대한 예의’, ‘자기변신의 도구’의 6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결혼여부, 소득, 학력, 직업, 외모관리비용, 사회계층을 조사하였으며, 심리적 변인으로 연구대상자의 행복도를 1문항 포함하였다.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항의 이해도와 타당성을 평가한 후 수정 및 보완하여 2차 설문조사는 2011년 8월 22일에서 9월 9일까지 600

부를 배부하여 그 중 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완전한 21부를 제외한 총 579부를 통계처리하여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대 210명, 30대 135명, 40대 120명, 50대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의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백분율, 요인분석, 주성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u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에성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고 미혼인 경우에 자기에성향이 높았으며, 자기애는 외모관리비용과 유의적 관계가 있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의식을 볼 때, 20대와 미혼이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신체관리노력’이 높았으며 행복감이 낮을수록 ‘신체관리노력’도 낮아졌다. 한 달에 소요되는 외모관리 비용이 70만원 초과가 가장 많았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의식을 보면, 20대는 ‘성형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이, 미혼은 ‘의복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기혼은 ‘피부관리지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체중(몸매)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은 외모관리비용이 70만원 초과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을 보면, 20대는 ‘외모상승의 즐거움’이 높았고, 30대와 50대는 ‘타인에 대한 예의’가 높았다.

둘째, 여성들의 자기에성향을 보면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타인의존적’ 자기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주도적’ 자기에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존적’ 자기에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높고 긍정

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었으며, ‘타인의존적’ 자기애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기애성향을 가진 ‘자기주도적’ 자기애성향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신체자신감’이 높았으며, ‘신체불만족’은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신체관리노력’은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으로써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의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의존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정도도 높았다.

넷째,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타인의존적’ 자기애보다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 모두 ‘의복관리지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의 관계를 보면, ‘신체자신감’은 ‘의복관리지향’과, ‘신체불만족’은 ‘체중(몸매)관리지향’과, ‘신체관리노력’은 ‘성형관리지향’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신체불만족’은 ‘체중(몸매)관리지향’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신체관리노력’에서는 적극적 외모관리행동이라 할 수 있는 ‘성형관리지향’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다섯째, ‘신체자신감’, ‘신체관리노력’은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외모상승의 즐거움’과 ‘신체불만족’에서는 ‘자신감 향상’의 도구로서 화장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신체의식이 높으면 활발한 화장의 심리적 효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외모관리행동의 영향을 볼 때 ‘피부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이 주요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

상승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 ‘유행추구’, ‘타인에 대한 예의’는 ‘자기변신의 도구’, ‘의복관리지향’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외모관리행동이 높을수록 화장의 심리적 효용도 높게 나타났는데 ‘체중(몸매)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을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주요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상승의 즐거움’, ‘타인에 대한 예의’와,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자신감 향상’과 상관관계수가 높았다. 따라서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을수록 자기애성향이 강하며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연령이 낮아질수록, 또 기혼보다는 미혼의 경우가 자기애성향이 뚜렷하여 향후 자기애성향자가 많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연령이 낮은 20-30대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외모관리 비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또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신의 신체이식이 뚜렷하여 신체를 관리하려는 노력도 높아졌으며 피부관리, 화장관리, 의복관리 뿐 아니라 적극적 외모관리인 성형 및 체중(몸매)관리도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신체이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애성향은 신체이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주요한 성격 특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자기애성향이 복잡한 특성들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특권의식, 자만심 등의 병리적인 면의 차이를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기애성향자들의 특징인 자기가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

하고,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외모관리행동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인과 심리적 효용의 특성을 조사하여 뷰티산업의 마케팅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뷰티산업 관련 영역의 전통적인 영역 이외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심리학 분야와의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6
1. 자기에	6
2. 신체 의식	14
3. 외모관리행동	25
4. 화장의 심리적 효용	30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39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39
2. 측정도구	41
3.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43
4. 자료 분석	46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8
1. 자기에성향, 신체 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요인분석	48

2.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자기애성향, 신체외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56
3. 여성들의 자기애성향의 특성	71
4. 자기애성향과 신체외의식의 관계	72
5. 자기애성향, 신체외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의 관계	74
6. 신체외의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79
7.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81
8. 자기애성향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83
V. 결론	86
1. 요약 및 결론	86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9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자기에의 특성	14
<표 2> 신체의식의 분류	25
<표 3> 화장의 효용	34
<표 4> 설문지 구성	42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의 분포	45
<표 6> 자기에성향의 요인분석	48
<표 7> 신체의식의 요인분석	50
<표 8>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52
<표 9>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요인분석	55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자기에성향	58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신체의식	61
<표 12>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64
<표 13>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화장의 심리적 효용	70
<표 14> 자기에성향 평균과 표준편차	71
<표 15> 자기에성향과 신체의식의 상관관계	72
<표 16> 자기에성향이 신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73
<표 17> 자기에성향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	75
<표 18>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	76
<표 19>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77
<표 20>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78
<표 21> 신체의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	79
<표 22> 신체의식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	80
<표 23>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	81

<표 24> 외모관리행동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	83
<표 25> 자기에성향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	84
<표 26> 자기에성향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	8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40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보다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평가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쟁에서 이겨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등의 지나친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 이기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자기애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대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이 지나쳐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결점과 한계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타인과의 융화에 미숙한 부적응적 자기애는 개인에게는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이며 사회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적응적 자기애는 적대감과 분노감도 높아 신체적, 심리적 질환에 취약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인숙(2002), 한혜림(2003) 등 자기애성향을 다루었던 연구에서 자기애성향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노, 우울, 타인에 대한 공격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그들의 사회 부적응적인 면이 우려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은 자기도취적인 우월감과 독단적인 성격을 만들어낸다. 흔히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신조어는 병리적 자기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자기애(narcissism)를 지칭하는 것이며 현대의 자기우월주의적 사고를 가진 그릇된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김종숙(1997)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자기도취적 혹은

자기애적인 사고와 행동이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미국 뉴욕 주립대 심리학 박사 Michael은 1996년에 열렸던 미국의 심리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남성과 여성은 병적 자기애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남성의 자기애는 완벽주의, 과도한 경쟁, 분노폭발 등이 전형적인 특징으로 이러한 자기애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는 스포츠, 정치, 기업경영 등에서 높은 성취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기애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며 특별한 대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내면적으로 자신에 대한 열등감 및 우울,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특성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애적인 성향을 지니도록 유도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자기애는 일종의 심리장애지만 이는 강력한 자아가 아니라 내재된 자기회의(自己懷疑)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경향신문, 1996. 8. 14). Lasch, Emmons 외 많은 학자들 역시 병리적인 개념보다는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성격 특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정(2008)은 자기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미에 대한 숭배라 지칭하였고, 그들은 과시적(誇示的)이며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였다. 실제 그들은 외모, 몸매, 성적 매력, 지적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객관적인 현실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름다움은 선(善)이다’라는 말이 있다. 매력적인 신체의 사회적 기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신체적 매력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외모에 더욱 집착하게 되며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자아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신체매력도를 기준삼아 신체의 이상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규범화된 사회 내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신체 기준과 비슷하면 자신이 가치있다고 느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며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자아가 쉽게 형성되는 것이다.

외모에 대한 기준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다. TV나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는 개인의 미적 추구 행위를 자극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미에 대한 수용과 기호를 결정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쳐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성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이면에는 신체의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와 같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석주, 정진경, 1992).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현재의 사회문화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부합하고 우월한 외모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디 프로젝트(body project)’에 투자하게 되어 패션, 미용, 운동 그리고 의료산업에 엄청난 상업적 이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에 따르면, 세계 뷰티산업은 약 3300억 달러의 규모이며 이중 성형시장은 약 200억 달러의 규모이고, 우리나라의 성형시장은 약 5조원의 규모로서 세계 7위의 성형대국이다.

이상화되지 못한 외모는 스트레스와 콤플렉스의 주범으로서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직장인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최대의 콤플렉스는 학벌이나 영어실력이 아니라 외모콤플렉스(여성 51%, 남성 36%)로 나타났다(중앙sunday, 2011, 1. 9).

외모관리행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화장행동은 매력적인 커뮤니

케이션이자 사회적·대인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자아에 대한 의식이 높고 자신감이 충족되어 자아관여도가 증대될수록 화장행동에 적극적으로 되며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대인관계를 맺어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여성들이 화장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상대에게 어필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타인에게 주는 인상이나 타인의 반응에 깊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당사자의 심신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大坊, 神山, 2005).

여성들은 화장행동을 통해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성(性) 정체성 확립과 여성성의 고착, 자기개념 설정을 경험하며, 미적 수단과 사회적 승인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최근 자기애에 관한 연구는 부적응적인 성향, 심리적 장애와 결부시킨 한수정, 권석만(2010), 이상미(2009),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 윤정혜(2009) 등의 연구가 있으며, 자기애와 외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김유성(2011), 김종욱(2010), 김해정(2008), 박은정, 정명선(2010), 신동주, 정남운(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자기애적인 성향자들이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이 개인 내부 및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심리학자 및 임상가들은 그들의 정서적 반응에 주목해왔으나 자기애적 성격유형이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는 과정에서의 인지적인 취약성에 관한 보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이나 화장의 심리적 효용과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서 사회, 문화적인 태도와 자기애의 성향에 따른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는 20대에서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에 성향을 파악하여 자신과 타인의 견해와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신체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체에 대한 우월의식 및 열등의식 등의 심리적 변인들이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는 자기에의 성향이 강한 현대 여성들이 긍정적인 신체외식을 형성하고, 뷰티산업의 건전한 마케팅 수립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여성의 자기에성향, 신체외식에 대한 태도와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들의 자기에성향을 구분하여 밝힌다.
- 2) 여성들의 신체외식에 대한 인식과 신체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다.
- 3) 여성들의 자기에성향과 신체외식의 관계를 연구한다.
- 4) 여성들의 자기에성향, 신체외식과 외모관리행동의 관계를 연구한다.
- 5) 여성들의 자기에성향, 신체외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연구한다.
- 6)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연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에

1) 자기에의 개념

1970년대부터 나르시시즘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대두되면서 ‘Me Generation’ 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세대를 표현하는 말로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기 자신 또는 관련 집단의 이익 외에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바라는 현대의 젊은 층을 지칭한다(Emmons, 1984). 현대인의 자기에성향은 자기중심의 개인주의와 병리적 특수현상에서 비롯되었는데, 사회학자 Lasch(1979)는 현대 사회를 ‘자기애의 사회’라고 규정짓고 자기애적 가치관이 치열한 사회 경쟁구도에서 오는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타인과 공존하고 연대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인 자기에를 갖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Fromm(2009)은 현대 문명의 과제는 과도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의 결핍에서 비롯된 자기관심(self-concern)의 의미를 상실한 데 있다고 보았으며, 현대인의 새로운 소외현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 윤리적 통합성의 상실로 규정하고 윤리의식의 회복을 사회질서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자기애’ 혹은 ‘나르시시즘’은 정신분석학적 용어로서 자신이 리비도(Libido)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1899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넥케(Nacke)가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Narcissus)와 연관 지어 사

람이 환경에 대해 보이는 반응스타일을 서술하면서 만든 말이다(권석만, 한수정, 2010). 이 말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Freud가 1909년 「The Vienna Psycho-Analytic Society」에서 이를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도입한 이후이며, 그에 의하면 자신의 육체, 자아, 자기의 정신적 특징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것, 즉 자신에게 리비도가 흘러있는 상태, 또한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Akhtar & Thomson, 1982). 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병적인(mobid) 자기사랑’ 또는 ‘자기감탄’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애는 1970년대 이전에는 정신분석학 이론 혹은 초심리학 이론에 입각하여 다루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해져서 정신분석 이론상의 한 개념으로서의 ‘자기애’와 임상용어로서의 ‘자기애’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기애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는 인식 하에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3판 DSM-II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th edition)부터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진단범주를 추가하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현재는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로 오면서 이전에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에 포함되었던 ‘과장성’이라는 주제가 더 강조되었고, ‘비판에 대한 부적 반응’이라는 준거는 제거되었다. 정신분석학자인 Kohut, Kernberg, Miller 외 수많은 학자들은 자기애와 관련된 인간과 성격발달을 연구하고 이론화시켰으며,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성격장애의 주요한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2) 자기애의 선행연구

Freud(1953)는 자기의 과대화, 과대망상, 이상화, 완벽추구, 자존감 손상에 대한 두려움, 특권의식, 타인을 자신과 분리시키지 못한 채 자신의 연

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경향 등을 자기에의 특징으로 여겼고, 이러한 과도한 자기에적 측면은 내면의 대상상실로 인한 우울함에 대한 방어로 보았다. Raskin & Hall(1981)은 자기에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의 특성으로서 자기(自己)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중심적인 심리상태라고 하였다. Kernberg(1975)는 자기에적 성격이 강한 사람은 과도하게 자신에게 몰입하고, 칭찬에 의존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어서 과시를 통해 남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감이 높고 자기도취적이나 타인의 관심과 칭찬을 갈구하는 자기에적 역설(narcissistic paradox)이 있다고 하였고, Kohut(1984)은 건강한 자기에에는 삶에 활력과 자존감을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갖지만, 병적 미숙에 머물면 자기에적인 성격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또 건강한 자기에가 발달하지 못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에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내적 구조를 ‘수직 분리(vertical splitting)’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유아기 때 양육자이며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어머니와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과잉보호를 받거나, 칭찬에의 욕구가 저지되었을 때, 중심적인 자아로부터 과시적이고 웅대한 부분이 분리됨으로써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자기(grandiose self)가 형성되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내적 분리 구조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심리적 불안정과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았다.

Papps & O'Carrol(1998)의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반면, 자존감은 높지만 자기에 수준은 낮은 집단은 가장 낮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노(anger), 적대감(hostility), 공격성(aggression)은 AHA 증후군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

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Spielberger, Johnson, Russel, Crane, Jacobs, & Worden, 1985).

Raskin & Novacek(1988)은 자기애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하며, 보다 지배적이며 독재적이고 반항적이며 타인과 경쟁을 즐기며 우월감을 느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자기애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판단, 자기과시, 자기몰입이 강하며 주위로부터 칭찬, 칭송, 그리고 타인과 다른 특별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것을 동물적 감각으로 인식한다. 또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여 타인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심리를 강하게 드러낸다(Emmons, 1984). 김유성(2011)의 연구에서도 자기애는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착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애성향은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일본, 미국,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 대학생이 타 학생들에 비해 자기애성향이 보다 뚜렷하여 지역별 자기애성향에서 차이가 있었음이 보고되었다(Fukunish & Nakamura, 1996).

이렇듯 국내·외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은 현대인의 내적 공감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심리학적 성격이론에 입각하여 자기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성격특성의 주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자기애의 특성

자기애성향이 강하면 외적이미지가 점차 뚜렷이 향상되어 자기강화조건

이 충족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내적이미지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고 하였다(Roberts, Callow, Hardy, Woodman, & Thomas, 2010).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자신의 과장된 지각과 특권 의식 등으로 다루었던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진단 기준은 Kernberg(1975)가 기술한 자기애적 성격의 외향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DSM-IV에 제시된 자기애적 성격장애와 내면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자기애 병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았다(Wink, 1991). 자기애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병리적인 면의 양면적 특성 때문에 보통 자기애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눈다. 자기애가 발현되는 양상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하고 있는 연구(Kohut, 1977)가 많으며, Wink(1991)는 자기애를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으로 나누는 근거로서, 다면성 인성검사에서 여섯 종류의 자기애 척도를 요인 분석했던 두 가지 요인 즉, ‘거대성-과시성’과 ‘취약성-민감성’이라는 요인을 추출해 자기애성향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가졌다고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가 거대자기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 등과 같은 자기애라는 공통적인 특성과 더불어 서로 다른 성격적, 행동적 특징들을 보인다는 사실을 시사한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란, 외현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기애의 숨은 특성으로 외현적 자기애의 특징인 ‘자기과시’, ‘웅대성(grandiosity)’과는 다른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민감성(sensitivity)’의 특징으로 귀결된다. 또한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아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과도한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성향이 내향적이고 우울하며 공격성과 분노를 억제하는 수준도 더 높고 자기명료성은 낮으며 부정적인 심리특성과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박세란(2004)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자기애보다 우울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Rose(2002)는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감이 많은 내현적 자기애 유형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반면, 외현적 자기애 유형은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보았는데, 연구결과는 상반된 두 유형의 자기애 모두 자존감이 매개하여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이익을 얻는 데 있어 외현적 자기애가 더욱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이익을 얻기에 심리적 소모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면에서 외현적 자기애자와 유사하나 위축되어 있고 상대의 비판에 수치심을 느낀다. 한수정(1999)도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우울하다고 하였고, 박혜진(2003), 조수진(2007)도 내현적 자기애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에서 부적응적인 측면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여 타인의 의견이나 시선에 촉각을 세우며 회피전략을 쓰게 되는데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예를 들면 심장 두근거림이나 두려움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들이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공감을 보이려고 애쓴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 자기애성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적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백승혜, 현명호, 2008).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현적 자기에보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이 더 크고 사회에 부적응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이처럼 외현적 자기에에 비해 내현적 자기에의 병리적 양상을 연구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Raskin & Hall(1981)은 자기에와 정신증적 경향성(psychoticism)을 관계지어 생각하는 것은 자기에를 왜곡시키려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외현적 자기에의 특징으로는 과대 자기표상과 자기 과시적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자신에 대한 애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장되게 인식하거나 성공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과하며 타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타인보다 더 외향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적응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하며 자존감이 높고 불쾌한 정서를 덜 느끼는 등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보인다.

자기에 성격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현적, 외현적 유형에 관계없이 타인의 비판이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다. 외현적 자기에자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명시적 수준에서의 자존감이 높고 자신이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한다(한수정, 권석만, 2010). 그러나 실제로는 자아가 취약하므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두에 외부평가에 민감성을 보인다. 외현적 자기에는 자기에적인 속성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내현적 자기에는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에적인 성격과 역동과 기제를 자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통점은 두 가지 유형 모두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며 몰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에의 긍정적인 면과 병리적인 면의 단편적인

면만 다를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면에서의 자기애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강은영, 이영호(2006)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기애 척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자기애의 특성 중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이차원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여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 존적’ 자기애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타인의 존적’ 자기애보다 자존감이나 자기개념이 높고,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영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자기애성향이 강해지면 자기왜곡과 초자아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여 그것이 대인관계에서 위협적으로 보이는 대상들에게 투사된다고 보았다. 타인의 감정을 알고 공유하며 대인관계에서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자아강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이며, 현실감증, 지능, 창의력, 정서적 건강의 예방과 유지에 중요하다.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애성향이 너무 강할 경우 실제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내적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길주현, 오경자(2008)는 자기애의 세부 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대인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여성이 지배나 권력의 욕구가 높을 경우 사회로부터 비난이나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손상된 자기개념을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자기애에 관한 임상심리학 및 정신의학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애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이러한 부정적 요소 뿐 아니라 긍정적 요소를 모두 가져오는 양면성을 띤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자기애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자기애의 특성

특 성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평가	긍정적	부정적
자기의식	자기과시, 웅대한 자기표상	자존감과 자기명료성 낮음, 우울, 취약성, 민감성
평가에 대한 반응	타인의 긍정적 평가를 요구하거나, 이미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각	부정적 평가를 예상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 상대 비판에 수치심을 느낌
자존감	자존감 높음, 불쾌한 정서를 덜 느낌	자신감 부족, 자존감 낮음
대인관계	적응적 방어유형	과도한 방어적 태도
공 통	자신의 과장된 지각, 자만심, 특권의식,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	

2. 신체의식(Body Consciousness)

인간의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 개념이 정신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정신과 신체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정신, 심리적 경로를 통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신체의식은 자신에 대해 의식하거나 무의식적인 태도가 종합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의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개

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진 유전적 요소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사회로부터 성숙되어 문화적 가치나 개인의 특수한 경험들에 의해 신체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신체의식의 변화는 성격의 변화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자신의 외모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회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적 신체의식에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은 신체적 외관(자세, 체격, 얼굴특성, 피부, 모발 등)에 대한 의식이 크다는 것을 뜻하며, 신체의식은 사회적 자아의식과 사회불안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 자아의식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Kwon, 1992).

Mckinley & Hyde(1996)는 신체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는 정도인 신체감시성(body surveillance), 신체외모를 판단하는 데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신체수치감(body shame), 자신의 외모를 통제함으로써 신체외모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외모통제신념(appearance control beliefs)을 포함하는 24문항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OBC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를 개발, 타당화하였다. Mckinley & Hyde(1996)는 이 세 가지 척도를 신뢰할 수 있는 구분이라고 하였는데,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감은 신체의 부정적인 면과 관련지었는데, 이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면, 성격의 특성, 성향, 신체경험 등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외모통제신념은 젊은 여성에게는 몸매를 관리하기 위한 다이어트 및 식이조절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과 연관되었다.

Cash & Hicks(1990)는 얼굴을 포함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는 신체만족도가 신체이미지와 매우 밀접한 개념이지만 신체 그 자체보다 오히려 다양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체만족도는 신체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신체상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정지영, 2003). 개인의 신체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현실적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체중(몸매) 조절, 피부관리, 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의 만족도를 높인다.

1) 신체감시성(Body Surveillance)

여성의 몸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to be looked at)’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신체감시성(body surveillance)은 자신을 대상화하여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듯 바라보는 것으로 신체는 ‘통제’의 대상이라고 보는 개념이다(Spitzack, 1990). 자신의 신체를 ‘자기애’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문화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부정적 평가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로 신체, 외모에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높아지게 되고 신체에 대한 감시로 나타나게 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높을 경우 외모가 어떠한가는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더 많이 감시하고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체에 대한 지향성이 낮을 경우 신체상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치 않은 요인이 되며 신체를 덜 감시하게 된다.

Miller & Buss(1981)는 현대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 초기단계에서 신체적 매력은 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에서 인지된 신체매력의 중요성은 대인지각과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주므로 신체적 매력의 자기지각 차원은 영향력이 있는 비교속성으로 선택된다고 하였으며, Mackinley & Hyde(1996)의 연구에서 여성의 신체는 남성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구성되고 남성으로부터의 주목과 호감을 얻기 위해 신체의식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여성들이 문화적 신체 표준을 따르고 부정적 평가를 피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타인들이 자신들을 보는 것처럼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지속적인 자아감시가 필요하다 하였다. 또 그들은 여성들이 신체감시를 자기사랑(self-love), 건강 및 개인적 성취와 관련시키는 것을 학습한다고 하였으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나 수치심, 우울감 등은 나아가 부정적인 신체적 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 신체에 대한 감시 행위로 표출되며 지속적인 신체감시는 부정적 경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여성들의 이러한 부정적 신체의식은 그들의 성(性)역할이나 거대 미디어(mass media)의 압력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여성들의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신체감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신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는 행동에 제약을 받으며 자신과 표준화된 이상적 기준과의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져 대인관계 및 외부세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Mckinley & Hyde, 1996).

Noll & Fredrickson(1998)은 신체감시성은 자신의 신체자기를 관찰자 시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외모에 대한 습관적인 감시를 유발하는 하나의 자아의식(self-consciousness)의 형성을 유발한다고 하며, 거울을 통해 자신을 객체화하여 인식했던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사회의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객관화하고 대상화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게 된다. 환경을 통해 습득되어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외모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기

준을 세우고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발달에 의해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심리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내재화하여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 이미지의 내면화는 이러한 외모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부추기게 되고 스스로를 관찰대상으로서 인식하게 되며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시각화된 이상적 이미지와 아름다운 신체가 가지는 사회적 혜택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체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내면화시킨다. 아름다운 신체외모를 갖는 것이 개인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신념을 갖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화(對象化) 경향을 가져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구자연, 하은혜(2010)의 연구에서 공적 자기의식과 신체감시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이 외모를 더 중시하고 외모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매력적인 신체의식에 대한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매력적인 신체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본성상 당연한 일이며, 미의 기준은 시대적 기준에 따라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사회에서 신체외모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존재가치감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지나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신체의식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고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가져오는 폐해도 생겨난다.

Noll & Fredrickson(1998)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고 관찰하게 될 경우 이상 섭식장애¹⁾, 우울증, 성기능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에 취약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나친 신체의식의 부적응적인 면은

사회에서 대인관계의 불안 및 정신병약의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 자칫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2) 신체수치감(Body Shame)

정남운(2001)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부정적 평가를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늘 과민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은 자신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염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이에 강상현(2000)은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상 불만족으로 표출되는데 신체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민감하기 마련이고, 신체상 부정적 평가로 결론지어 결국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지각과 평가의 원인을 자신이 지각한 부정적 신체로 기인한다고 본다. 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적 회피 및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련되며(권은미, 2006; 한혜림, 2003), 수치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이인숙, 최해림, 2005; 한혜림, 2003) 보고되었다.

신체수치감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에서의 이상적으로 평가받는 외모의 기준에 자신이 미달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자기신체 및 외모에 대해 수치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비교를 하게 됨으로써 문화적 신체기준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 기준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

1) 섭식장애(Eating Disorder)는, 식이행동의 현저한 장애가 특징으로 정신과 영역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진단인 거식증(Anorexia Nervosa: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폭식증(Bulimia Nervosa)으로 나눌 수 있고 최근 폭식장애(Binge Eating Disorder), 기타 섭식장애(Eating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를 포함한다(이화정, 2009).

노력하며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끊임없이 신체수치감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적인 신체에 대한 문화적 표준을 내면화한 여성들은 그 표준의 성취를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시킴으로써, 그것들을 성취하지 못할 때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신체표준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이상화시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Mckinly & Hyde, 1996).

Lewis(1971)는 수치감(Shame)은 자기전체(entire-self)가 문제시되는 경험이라고 정의했다(박임마누엘, 2008, 재인용). 최근 수치감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은 현대인의 정신장애가 자기에 장애, 경계선 장애, 중독, 섭식장애 등 자기존중감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결국 수치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는 데 신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자아상(自我想)을 가지게 된다.

Mckinly & Hyde(1996)는 여성들이 과도하게 마른, 그래서 도달 불가능한 문화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대상화된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이라 하고, 이런 의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경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대상화를 통해 느끼는 수치감을 신체에 대한 특정 감정이 아닌 자아측면에서 포괄하는 것으로, 신체외모를 둘러싼 좌절감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김윤, 2007).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이상미를 내면화함에 따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간접반응으로서의 수치감을 말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이상적 기준과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신체감시 및 신체수치감의 경우, 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Mackinley & Hyde, 1996).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Bartky(1998)는 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경험하는 수치감의 양은 문화적 표준을 내면화하는 정도의 척도라고 주장하였다.

Lennon & Lillethun(1999)은 사람들에게 상업광고를 보게 한 후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이상적인 이미지와 자기에 대한 존중, 자신의 신체이미지, 사회비교 태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대상 참가자들은 광고를 통해 그들 자신의 의복이나 이미지전략 등을 모방하고 있었고, 자신의 실제 모습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대중매체에 의한 왜곡된 신체상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내면화하거나 신체의 체형불만 등의 요인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 신경성 폭식증, 거식증, 낮은 자존감,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나타나게 되며, 결국은 사회의 부적응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용민(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사회적 체형불안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데,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기 대상화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체형불안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사회문화적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 해결방법인 스포츠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하기보다는 개인의 체형, 사회,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 오히려 신체활동을 덜 하거나 과도한 성형수술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손은정(2007)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자기 대상화에서의 신체감시가 높아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더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여 성형수술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더 뚜렷했고 자기비난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자기비난이 높을수록 과도한 체중조절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박은아(2003)의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의 신체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과 비교문화 연구에서도 한국 여대생은 신체감시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상태보다는 눈으로 드러나는 신체비만도 지표인 BMI(Body Mass Index)가 신체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시선의식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미국 여대생은 BMI(Body Mass Index)보다는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인 개인의 심리상태가 신체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공적 자기의식과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 인식에 대한 내면화가 높아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신체수치심이 큰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신체수치감은 단순히 신체 뿐 아니라 자아개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수치감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표준화된 신체기준의 범위를 현실에 가깝게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Mackinley & Hyde, 1996).

3) 외모통제신념(Appearance Control Beliefs)

외모통제신념이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주어진다면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문화적 표준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신념을 말한다(Mackinley & Hyde, 1996). 즉 내가 얼마나 나의 외모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면화된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책임감을 말한다.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객관화된 기준에 자신이 어느 정도 부응하는가에 대한 신념이다. 사회문화적 미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책임감

과 함께 자신의 신체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여성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의 이면에는 신체적 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우선적 기회와 경제적 풍요의 혜택 등의 사회적 우위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다.

Taylor(1989)는 신체에 대해 외부의 관점을 내면화한 사람은 자의식을 가지게 되고 신체의 건강이나 기능보다는 외모를 중시하게 되는데, 여성들이 자기 외모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유능감을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 자존감과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자신의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은 신체감시성이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신체수치심을 경감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대중매체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자아 창조를 위해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신체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듯 노출된 모든 환경에서는 이상화된 신체를 위하여 여성들이 신체를 변형 또는 통제 가능한 객체로 인식 가능케 하여 삶에 대한 통제감을 고취시켜 스스로를 사회적 기준에 맞추도록 억압한다.

Mackinley & Hyde(1996)는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통제해야 할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으며 객체로서 신체를 의식하는데 있어 외모가 통제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외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련된다. 즉 여성은 외모가 변형이 가능한 객체라면 외모와 관련된 사회적 기준을 따르는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라는 것이다.

외모통제에 대한 신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는데,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 것은 심리적, 신체적인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신체를 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는 체형을 가진 이유는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연결 짓게 되므로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면에서의 외모통제신념은 거식증(anorexia nervosa: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폭식증(bulimia nervosa)과 같은 이상 섭식장애나 운동중독증(muscle dysphoria)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을 해침으로써 신체적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여성들에게 그릇된 미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신념화하는 외모통제신념은 신체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신체감시와 문화적 신체표준의 내면화에 수반되는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보다 더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다.

Fallon & Rozin(1990)의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227명의 여학생과 248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은 대체로 현재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에서 큰 차이가 없던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현재의 평균치보다 훨씬 마른 모습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체중과 차이가 많으므로 지나친 다이어트 등의 결과로 인해 전문의에게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윤정(2004)은 외모에 대한 책임이 여성자신에게 지워지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모를 지닌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려 하는 극단적 노력의 결과로까지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음은 신체의를 구분하여 그 개념과 특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신체의식의 분류

분 류	개 념	특 성
신체감시성	자신의 신체를 '통제'의 대상이라 인식. 타인의 부정적 평가로부터 피하고자 함.	자신의 신체를 객관화, 대상화함. 이상 섭식장애, 우울증 등의 심리적 장애에 취약.
신체수치감	이상적 외모의 기준에 자신이 미달하지 못할 때 자기신체에 대해 갖는 수치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됨.
외모통제신념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면화된 기준으로 자신의 외모를 만들 수 있다는 책임감.	신체수치심 경감. 자아존중감 높아짐.

3. 외모관리행동(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1) 외모관리행동의 개념

현대의 소비 사회에서 몸 즉, 신체는 내적인 측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형적인 면에 치우쳐져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정주원, 2006).

현대의 여성들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여기고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관념을 내면화하면서 끊임없이 이를 추구하게 되어 여성의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추구, 심지어 가공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미의 기준은 각 개인에게 존재하기 보다는 사회적 기준으로서 특정 시대와 함께 변화해왔고, 개인은 그러한 사회적 기준

에 부합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Fallon & Rozin, 1990).

Bartky(1998)는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 통제하기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며,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성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외모(外貌)는, 의복과 액세서리, 신체 및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신체변형에 의해 생성되는 총체적인 합성 이미지를 의미하며(박은정, 정명선, 2010), 신체에 부착하는 것 뿐 아니라 다이어트, 문신 등의 신체변형의 과정까지 포함된다. 최근 경제적 성장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이 확대되면서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가 높아지며 웰빙 열풍과 더불어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도 극대화되고 있다. 외모관리는 자아개념 형성 및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며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도 연관이 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이 흔히 긍정적 측면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즉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은 자신에게 마땅한 것이며 그들이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가정에 기초되어 있다. 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현실을 지각하고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결점이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들의 외모가 하나의 자본이 되는 현상은 외모는 선천적이라는 과거의 개념과는 다르게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관리되는 것으로 사회적 관념이 바뀌게 되면서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증대시켰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체와 외모관리에 관련된 산업이 급속히 팽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외모관심도는, 외모에 대한 매력을 위해 의복과 화장, 장신구 등 신체장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정도를 말하며, 외모는 인체와 더불어

어 인체에 가해지는 의복이나 액세서리, 화장, 머리스타일 등에 의해 결정되고 수정되므로 외모에 대한 관심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지각하며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이명희, 이은실, 1997). 전현진(2010)은 여성들은 자신의 결점이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헤어나 의복, 체중(몸매)관리에 비해 얼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아름다운 신체외모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면에는 신체적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와 같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다(고석주, 정진경, 1992; 임인숙, 2004). 발달된 대중매체 속에서는 부유해 보이면서도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며 비호감의 우스꽝스러운 인물을 묘사할 때는 상대적으로 외적 매력이 덜한 외모상을 그리게 된다.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외모를 갖추어야 하고 아름다운 외모가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성공이 보장되고 긍정적인 인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모에 관한 내면화된 기준이 대중매체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내면에 있는 성향이나 가치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2) 외모관리행동의 선행연구

사람의 신체는 자아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여성에게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외모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낼지 선택할 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범주 내에서 선택을 하며, 답습하거나 창조하여 행동에 옮김으로써 문화적 패턴을 학습한다. 또한 외모관리행동은 외모에 대한 관심, 신체만족도, 자기표현력 등과 관련성이 있다.

이유중(2010)은 외모관리행동을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 및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감가는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아름다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주·객관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Aune & Aune(1994)은 비언어적 부호들을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특질을 어필하기 위한 보편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였으며, Kaiser(1997)는 사람들은 외모는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체중(몸매)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의복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적 신체와의 괴리감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선희(2003)는 사람들이 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내면화하여 이상적 기준에 접근하기 위해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이 동기화되어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하였고 때로 이상적인 기준과 자신의 미적 기준이 불일치될 때 신체의식이 낮고 부정적인 자아와 스트레스를 갖게 되고 다이어트, 이상 섭식행동, 성형수술과 같은 무리한 외모관리행동을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Lennon, Rudd, Sloan, & Kim(1994)은 이상적인 외모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를 창조하고 자신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적 기준으로 내면화되며, 이상적 기준에 접근하기 위하여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이 동기화되어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강영숙(2007)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외모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61.7%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86.9%는 외모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로는 운동, 패션에 대한 투자, 다이어트, 피부미용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취업이나 사회분위기상 외모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2006)은 적절한 외모관리는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믿음 등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 좋은 이미지가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으며, 사회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최근의 자기애, 신체외식,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김유성(2011)은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지각할수록 체중·몸매관리, 피부관리, 기능성 화장품 사용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신체 매력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는데 화장과 헤어행동을 통해 변화의 욕구가 많았고 매체정보 활용에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종욱(2010)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복관리, 몸매관리, 방문외모관리, 화장·헤어관리 순이었다. 박주현(2010)의 연구에서는 유행추구 집단이 외모관리행동이 가장 활발하고, 경제·실용 집단, 유행추구 집단에서는 체중, 체형관리를, 보수·전통 집단에서는 피부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체중·체형관리를, 만족도가 높을수록 화장, 헤어, 피부, 의복스타일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영분(2011)의 연구에서는,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체형관리가 높을수록, 타인지각이 높을수록, 신체자신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았다. 김윤(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신체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으므로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외모관리행동은 신체적, 정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외모가 선천적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관념이 형성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4. 화장의 심리적 효용

1) 화장의 사회·심리적 의미

현대 사회에서는 의복 뿐 아니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화장을 포함한 토털개념의 패션이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화장은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반영하며 미적 요소를 가지고 변천하는 패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의복에 비해 변화주기도 빠르고 유행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자기연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의 화장에 대한 관심은 날로 지속되고 있다. 신체적 매력은 얼굴에 의해 평가되므로 여성들은 화장을 통해 여성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며, 대인관계에 있어 화장행동을 자기표현 및 인상관리의 전략으로 사용하여 사회화과정의 경험을 한다.

화장하는 여성은 사회의 관습과 암묵적인 규범을 잘 따르고 순응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화장은 성공을 향한 도구적인(instrumental) 행동이며, 동시에 그 자체가 목표인 목적지향적인(terminal)행동이다.

행동학자들은 외모를 신체적 매력, 몸무게, 키, 얼굴의 특성, 몸치장 요소 등과 같은 신체외모의 변수들로 세분하여 인지하려고 하며, 이 세분화된 변수들을 분석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태도와 속성과 행동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발달과정에서 외모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행동은 자기표현이면서 자신의 인상관리, 대인관리를 하는 하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용을 위한 면접 시 화장이 인상에 영향을 주며 장소와 상황에 따른 화장행동은 공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조정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연결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화장행동의 사회적 평가는

사회·심리적 기능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발달과정 및 감성발달,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혹은 여성을 향한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하고 사회화과정을 통해 학습하며 이를 신념의 형태로 내재화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기대에 가치를 두고 부응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고 동기화하게 된다. 즉 화장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에서는 자기와 타인 혹은 사회의 평가가 개입되고 이러한 평가에 따라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자기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를 자의식적(自意識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의식적인 화장경험을 통해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혹은 마음의 범주 속에는 화장에 대한 신념과 욕구가 내재하고, 이러한 욕구와 신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일반인의 타인에 대한 혹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마음추론 방식과 일치한다(김양하, 김기범, 차영란, 2007).

Adams(1977)는 신체적인 매력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외모와 내부 심리적 특성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크게 사회적 고정관념, 사회적 교류, 성격의 내면화, 사회적 행동의 검토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는 외모의 매력성의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내적,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심리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리라 보았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인 Moscovici는 사회심리학을 다른 학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광범위한 인간 활동과 행동에 대한 문화와 아울러 인간의 내부적 활동들의 관련성을 이해하였다. 사회심리학에 관한 대표적인 사회학적 이론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당면하는 역할들과 기대들에 부여하는 의미

(meaning)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상징(symbols)이나 아이디어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며 언어나 몸짓 뿐 아니라 외모, 표정, 태도 등의 비(非)언어커뮤니케이션도 하나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도구로서 사회심리학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 중 자기제시에서 가장 보편적 동기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며 성공적 인상관리를 위한 화장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양하, 김기범, 차영란(2007)이 제시한 ‘화장마음의 사회인지 연구모형’을 보면 확신, 의견 등의 신념과 자신이 원하는 것, 욕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모두 경험하지만 화장에 대한 신념과 욕구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념보다는 욕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화장은 여성들의 자기에 대한 자각 및 평가를 의식하는 자의식적 경험(self conscious experience)을 통해 자기정체감 형성이나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능 등을 포함한 사회적 표상으로 내면화되는 아주 중요한 구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임미연(2005)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해 자기만족지향과 자의식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높다고 하였고, 화장행동과 자의식이 독립적으로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관습지향의 화장행동보다는 자기만족 지향의 화장행동에서 자의식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Desmond Morris는 화장은 성(性)을 강조하기 위한 신호로서 또한 적극적으로 이성을 유인할 인상관리의 일환으로서 성(性)적 관리의 의미라고 하였으며(大坊郁夫, 神山, 1996, 재인용), 김경신, 강정수, 김병수(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화장은 자신의 우월적 외모를 통해 젊음과

건강함을 보여줌으로써 성(性)적 구분이라는 근본적 이유를 가지게 되며 화장을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만족인 나르시시즘의 형태로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화장의 심리적 기저를 보면 자신의 만족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화장을 통해 미를 위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미의 기준이 변화하면 동시에 화장의 트렌드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화장은 비언어적 의사전달 수단이며 상대의 외모, 표정, 몸짓 등과 같이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행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며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안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미적 가치를 반영한다(김희숙, 1996). 또한 화장은 얼굴의 일부를 채색하는 것만이 아닌 다른 요인과의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토털패션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장을 통해 여성은 심리적 만족감과 통제감을 얻게 되고, 자아존중감(Bloch & Richins, 1992), 성역할 정체감과 여성성, 사회적 인정(이화순, 2002)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화장은 화장이 주는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의 자기만족감 혹은 자신감 등의 내면적인 측면과 주변인과의 효용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2) 화장의 심리적 효용 선행연구

화장과 신체적 매력에 관한 선행연구(Graham & Jouhar, 1981)를 통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익과 호감을 얻는다는 사실과, 신체적 매력이 삶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장을 하는 것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의 중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松井(1986)은 화장의 효용을 대자적(對自的) 효용, 대인적(對人的) 효용, 마음 건강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는데(이화순, 황춘섭, 2002, 재인용),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화장의 효용

대자적(對自的) 효용	대인적(對人的) 효용
적극성의 상승	적극적 대인행동
창조의 즐거움	매력인지
상태불안의 감소	타인에 대한 예의
자신감의 증대	성공적 인상관리
자아만족감	사회적 역할 적합

출처: 松井 豊 (1986). 化粧の性格 純摩武俊(編) パッケージ性格の心理 5. 東京:ブレーン出版 pp.55-56.

최수경, 강경자(2006)는, 화장의 심리적 효용은 직접적인 창조적 행위를 통한 자기 효용, 만족감과 대인적 효용이라 할 수 있는 역할 수행, 자기 정서를 통한 자존심의 향상,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 향상에 의한 만족감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화장행동을 도구, 유행, 관습, 동조, 개성, 과시의 6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여 신체적 만족도나 화장태도에 긍정적인 집단은 동조를 중시하나 도구는 중시하지 않으며, 생리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는 높고 안전의 욕구가 낮으면 도구, 유행 및 개성행동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욕구를 행동의 동기로 설명하면서 어떤 행동은 어떤 욕구에 의해 그 강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본 사회학자 Maslow의 견해와 일치하는 주장을 하였다.

Graham & Jouhar (1981)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관리와 헤어관

리에 대한 외모평가 실험에서, 화장을 한 사람에 대해 실험대상 전원이 호감을 가졌으나, 헤어관리를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70% 정도만 호감을 표시했다.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다 높이 평가하며,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평가를 낮게 하고 화장으로 얻을 수 있는 매력의 향상은 더욱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외적 매력과 자기평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화순, 황춘섭(2002)은 화장의 효과에 기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화장 후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효과에 대한 기대정도가 다름에 따라 자신의 화장 후 이미지를 다르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화장의 심리적 효과는 자기충실감, 일종의 감정의 정화기능을 하며 대인관계에서 동기유발 작용을 하며 만족감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자기개념에 대한 확신도가 강한 사람은 보통의 화장을 유지하면서도 자기개념을 보강해서 증강하는 화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고, 자기개념에 대한 확신도가 낮으면 자기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개념에 대한 확신도가 보통인 사람은 비교적 자기 확인 작업을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에 수반되어 화장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며, 다양한 화장을 시험해보기 때문에 소유하는 화장품 수가 많으며 화장법도 비교적 다양할 것이다(大坊, 神山, 1996).

Hamid(1968, 1972)는 화장 여부에 따라 여성성, 보수성, 친절함, 깔끔함, 자신감, 세련됨. 종교성, 도덕성 등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를 보여 화장한 여성이 더욱 여성적이고 친절하며 자신감 있고 세련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화장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일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아, 2003, 재인용). 여성은 화장을 통해

신체적 매력 뿐 아니라 내면의 성격과 가치관에도 영향력을 부여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외모는 자신을 나타내는 자아에 관한 정보이며 화장은 여성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타인을 향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행동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성격측면의 특성과 화장의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는데 대표적인 화장에 관한 성격특성으로는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과 자기존중감(self-esteem), 그리고 자기감시성(self-monitoring)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박은아, 2003).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기제시(self-presentation)에 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하며 자기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의복’과 ‘화장’을 이용한다(Cash, 1990).

Bloch & Richins(1992)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치장행위(grooming behavior)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다루었는데 개인의 성격, 역할 지각, 매력도 지각, 그리고 쾌락동기(hedonic need)를 주요 변인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Lennon, Rudd, Sloan, & Kim(1994)은 여성의 화장행위가 자신을 구성하고 변형, 개선하려는 목표가 담긴 것이면서도 매우 의례화 되어 있어서 여성 스스로 화장의 의미나 목표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상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화장의 동기는 사회화 비교과정에서 근거하는데, 여성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실생활에서 만나는 주변인, 미디어에서 제시되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자신의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이혜정, 오인영(2010)은 여고생들의 화장관심도에 대해 ‘유행선도’, ‘자기만족’, ‘외모관리’, ‘타인지향’, ‘외모만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화장행동은 ‘피부표현 중시’, ‘개성표현 중시’, ‘타인의견 중시’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5가지 화장관심도 요인과 3가지 화장행동 요인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분류한 결과 ‘개성추구형 집단’, ‘실리추구형 집단’, ‘화장무

관심형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개성추구형 집단'은 유행을 추구하고 개성도 중시하며 '실리추구형 집단'은 외모를 관리하는 성향은 강하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화장무관심형 집단'의 경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외모를 관리하는 성향 모두 약하게 나타났다.

김기범, 차영란(2006)은 화장의 사회화과정과 화장 전·후의 자기에 대한 지각 및 평가와 화장의 심리적 기능 분석을 정체성의 사회문화적 구성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화장의 다차원적 특성을 사회적 의미의 성숙(maturation), 사회 기능적면의 사회성(sociality), 사회의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성(instrumentality)과 여성성과 자기강화(自己強化)의 의미로서의 정체성(identity)으로 규정하였다.

공적인 장소에서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은 기본적 예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스스로를 가꾸지 않는 여성은 심지어 자기애가 부족하다는 경멸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인 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경멸로 이어지고 실제적인 차별과 억압을 조장한다(김주원, 2008).

결국 화장행동은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미적 가치가 부여되어 더욱 더 만족스러운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만족, 자기 개성의 표현으로 화장을 하게 되고, 자기 얼굴을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밈으로써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Graham & Furnham, 1981).

화장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보편적이며 원초적인 장식 행위이며 매우 중요한 문화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적 본능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으로서 자신의 인상을 관리할 수 있고 자기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의도적인 연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나아가서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정 등을 얻기 위한 화장의 효용 가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면서, 비(非)언어적 수단일 뿐 아니라 자아의 가치를 인식, 상승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대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애성향과 신체의식에 따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애성향,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
의 요인분석을 한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자기애성향, 신체의식, 외
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20-50대 여성들의 자기애성향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자기애성향과 신체의식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자기애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의 관계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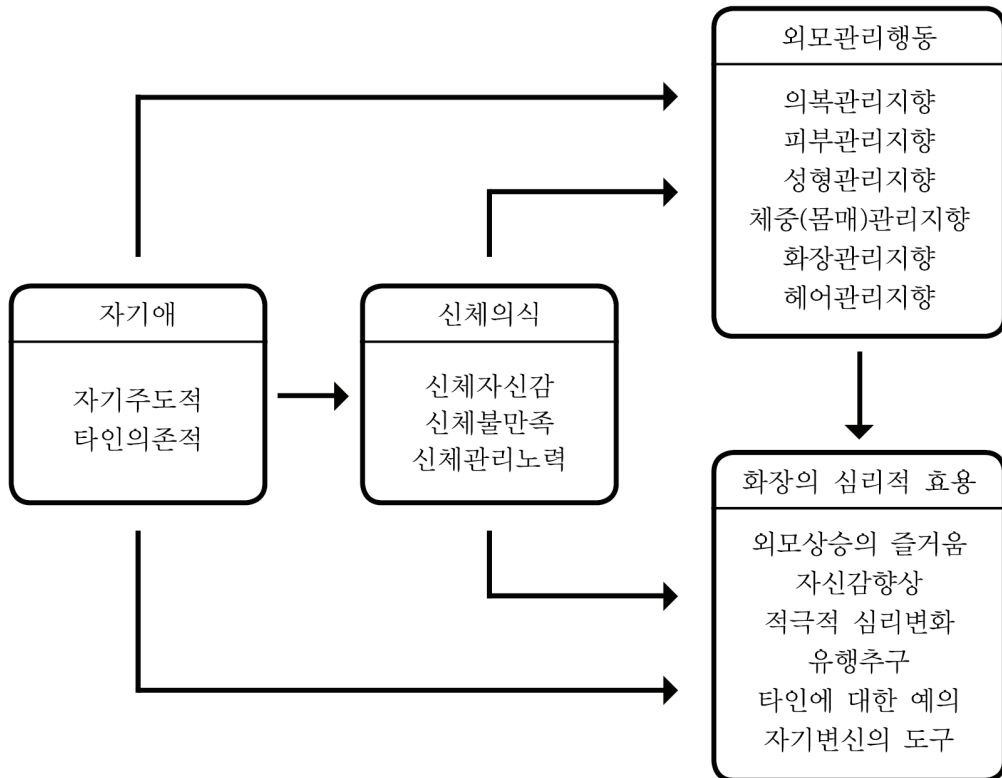
연구문제 6. 신체의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7.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규명한다.

연구문제 8. 자기애성향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규명한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문제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의 설계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자기애성향,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 인구통계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행복도의 총 6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1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기애성향

자기애성향은 강은영(2002)의 연구에서 자기애가 병리적인 면만이 아닌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자기애의 긍정적인 면의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인 자기애 측정에 관해 연구한 이차원적 자기애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2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 신체의식

신체의식은 안나영(2007), 윤소영(2007)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신체관리노력’의 3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김현정(2009), 박연옥(2004), 정윤희(2007), 김혜정(2008), 이명주(2010), 박찬석(2001)의 연구에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피부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에 대한 6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4) 화장의 심리적 효용

화장의 심리적 효용은 조기여(1997), 권현숙(2001), 이화순 (2002)의 연구에서 34문항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은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상승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 ‘유행추구’, ‘타인에 대한 예의’, ‘자기변신의 도구’의 6개의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5) 인구통계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연령, 결혼 여부, 월 소득, 학력, 직업, 한 달에 소요되는 외모관리비용, 사회계층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선다형으로 이루어졌다.

6) 행복도

연구대상자의 행복도를 1문항 조사하였으며, 척도는 5단계 평정척도형으로 이루어졌다.

<표 4>는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내 용	측정방법	출 처	문항 수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 결혼 여부, 월 소득, 학력, 직업, 외모관리비용, 사회계층	선다형	연구자	7
행복도	연구대상자의 행복도	5단계 평정척도형	연구자	1
자기애성향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5점 Likert	강은영(2002)	20
신체의식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신체관리노력	5점 Likert	안나영(2007) 윤소영(2007)	18
외모관리행동	피부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	5점 Likert	김현정(2008) 박연옥(2004) 정윤희(2007) 김해정(2008) 이명주(2010) 박찬석(2001)	30
화장의 심리적 효용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 상승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 자기가치 표현 타인에 대한 예의 자기변신의 도구	5점 Likert	조기여(1997) 권현숙(2001) 이화순(2002)	34
합계				110

3.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측

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후 102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일반적 특성의 7문항을 선다형으로, 행복도의 1문항을 5단계 평정척도형으로 총 110문항을 제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8월 22일에서 9월 9일에 걸쳐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6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완전한 21부를 제외한 총 579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관한 분포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총 579명 대상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210명(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가 135명(23.3%), 40대가 120명(20.7%), 50대가 114명(19.7%)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보면 기혼이 54.6%로 미혼의 45.4%보다 많았으며, 한 달 소득의 경우 100만원~200만원(21.9%), 200만원~300만원(19.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은 대학 재학(32.5%), 대학 졸(31.5%) 순으로 높았으며, 직업의 경우 전문직(33.3%), 서비스직(22.7%)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한 달 평균 외모관리 비용을 보면, 처음에는 8단계로 조사하였으나 10~70만원 미만의 분포가 다수 차지하였으므로 5만원 미만과 5~1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초과를 합쳐 재분류한 6단계로 하였다. 그 결과, 10~20만원 미만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이 22.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형, 의복, 체중(몸매)관리 등 비교적 고가의 외모관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화장품구매 등의 비용이라 예상할 수 있다. 70만원 초과도 10%를 차지하여 비교적 외모관리 비용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의 분포

(N=579)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연령	20대	210	36.3	학력	고등학교 졸업	150	25.8
	30대	135	23.3		대학 재학	188	32.5
	40대	120	20.7		대학 졸업	182	31.5
	50대	114	19.7		대학원 졸업	59	10.2
결혼 여부	예	316	54.6	한달 외모 관리 비용	10만원 미만	130	22.4
	아니요	263	45.4		10~20만원 미만	132	22.9
한달 소득	100만 원 미만	71	12.3		20~30만원 미만	121	20.8
	100만원~200만원	127	21.9		30~50만원 미만	96	16.6
	200만원~300만원	112	19.4		50~70만원 미만	42	7.3
	300만원~400만원	89	15.3		70만원 초과	58	10.0
	400만원~500만원	76	13.1	사회 계층	하	141	24.4
500만 원 초과	104	18.0	중		313	54.0	
직업	전문직	193	33.3		상	125	21.6
	사무직	40	7.0	행 복 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	0	0
	서비스직	132	22.7		별로 행복하지 않다	32	5.5
	판매직	24	4.1		그저 그렇다	149	26.5
	관리직	24	4.1		행복한 편이다	328	54.1
	학생	87	15.1		매우 행복하다	70	12.1
	무직	79	13.7				
합계	579	100.0	합계	579	100.0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변인으로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행복한 편이다’가 54.1%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행복하다’도 12.1%이며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행복한 편이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어떤 사회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한 응답의 경우 처음에는 5단계로 조사하였으나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계층으로 ‘중’의 분포가 다수 차지하였으므로 ‘하’, ‘중하’와 ‘중상’, ‘상’을 합쳐 3단계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로, ‘중’ 54.0%, ‘하’ 24.4%, ‘상’ 21.6% 순으로 나타나 자신의 사회계층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타당도 분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별로 묶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계수가 0.5 이상인 요인문항만 본 조사용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해 사후검증하였다.

넷째, 자기애성향,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상관관계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에성향,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대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기애성향, 신체의식,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요인 분석

1) 자기애성향

자기애성향의 요인분석을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2개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변량의 총 백분율은 40.66%이다. 요인 1은 ‘자기주도적’ 자기애성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4 이상이고 모두 10문항이다. 고유치는 5.11이고, Cronbach’ α 신뢰도는 .85이며. 요인 2는 ‘타인의존적’ 자기애성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2 이상이고 모두 10문항이고 고유치는 3.02, Cronbach’ α 신뢰도는 .72이다. 이에 자기애성향의 경우 2개의 요인의 도출되었으며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자기애의 하위요인에 관한 요인분석은 <표 6>과 같다.

<표 6> 자기애성향의 요인분석

(N=579)

요인 1. 자기주도적	요인부하량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2
나는 내 책임 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68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67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61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61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61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59
나는 내 주장이 강하다.	.5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55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54
고유치 5.11 분산(%) 25.54 누적변량(%) 25.54 Cronbach' α 신뢰도=.85	
요인 2. 타인의존적	요인부하량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76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	.74
유력한(유능한)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73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69
내가 해 낸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66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종종 있다.	.61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60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55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54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52
고유치 3.02 분산(%) 15.12 누적변량(%) 40.66 Cronbach' α 신뢰도=.72	

2) 신체 의식

신체 의식의 요인 분석을 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3개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 변량의 총 백분율은 50.52%이다. 요인 1은 '신체 자신감'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7 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다. 고유치는 3.04, Cronbach' α 신뢰도는 .79이다. 요인 2는 '신체 불만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3 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다. 고유치는 3.11, Cronbach' α 신뢰도는 .78이다. 요인 3은 '신체 관리 노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60 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다. 고유치는 2.94, Cronbach' α 신뢰도는 .77이다. 신체의식의 요인분석은 <표 7>과 같다.

<표 7> 신체의식의 요인분석

(N=579)	
요인 1. 신체자신감	요인부하량
나는 내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77
나는 옷이 나에게 편안한가 보다 내게 잘 어울리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75
나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72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한다.	.72
나는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65
나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화장법을 알고 있다.	.57

고유치 3.04 분산(%) 16.89 누적변량(%) 34.16 Cronbach' α 신뢰도=.79	
요인 2. 신체불만족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사이즈가 아니라 부끄럽게 느껴진다.	.83.
나는 사람들이 나의 실제 체중을 아는 것이 꺼려진다.	.79.
나는 내 외모가 최고로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자책한다.	.66
나는 내 체중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진다.	.64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60.

고유치 3.11 분산(%) 17.27 누적변량(%) 17.27 Cronbach' α 신뢰도=.78	
요인 3. 신체관리노력	
나는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체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2
미용성형은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67
나의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해 미용성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66
외모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가꾸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5
나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얼굴 혹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64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때 옷맵시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60

고유치 2.94 분산(%) 16.36 누적변량(%) 50.52 Cronbach' α 신뢰도=.77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을 한 결과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6개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변량의 총 백분율은 57.52%이다.

요인 1은 '의복관리지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6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다. 고유치는 3.79, Cronbach' α 신뢰도는 .77이며, 요인 2는 '헤어관리지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69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다. 고유치는 3.48, Cronbach' α 신뢰도는 .67이며, 요인 3은 '성형관리지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7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다. 고유치는 3.02, Cronbach' α 신뢰도는 .84이며, 요인 4는 '피부관리지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2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다. 고유치는 2.60, 전체변량은 Cronbach' α 신뢰도는 .79이며, 요인 5는 '화장관리지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2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다. 고유치는 2.46, Cronbach' α 신뢰도는 .78이며, 요인 6은 '체중(몸매)관리지향'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다. 고유치는 1.19, Cronbach' α 신뢰도는 .66이며, 외모관리행동의 경우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서 도출된 6개의 요인에 '의복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피부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이라고 명명하였다.

김유성(2011)의 연구에서는 미용관리행동의 하위요인을 체중(몸매)관리, 피부관리, 매체정보 활용, 화장행동, 기능성화장품 사용, 헤어행동의 6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중매체(TV, 잡지, 인터넷 등)를 통해 화장, 헤어스타일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문항 및 기능성화장품 사용이라 명명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영분(2011)의 연구에서는 체중(몸매)조절 및 체형관리 행동, 미용성형수술 행동,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행동, 의복행동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피부관리

지향'과 '화장관리지향' 등의 세분화된 내용을 미용, 성형수술 행동에 포함함과 구분된다. 외모관리행동의 하위변인에 관한 요인분석은 <표 8>과 같다.

<표 8>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N=579)

요인 1. 의복관리지향	요인부하량
나는 옷을 입을 때 의복분위기에 맞는 패션소품(모자,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을 반드시 고려한다.	.74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74
나는 옷은 계절별로 꼭 사는 편이다.	.60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60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인기 있는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사고 싶다.	.56
고유치 3.79 분산(%) 12.63 누적변량(%) 12.63 Cronbach' α 신뢰도=.77	
요인 2. 헤어관리지향	
나는 모델이나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	.83
나는 헤어 영양제품(헤어 에센스, 헤어 영양크림 등)을 자주 사용한다.	.78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72
나는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두피·모발관리를 받고 싶다.	.71
나는 머릿결을 잘 관리하는 것은 얼굴을 가꾸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9
고유치 3.48 분산(%) 11.58 누적변량(%) 24.21 Cronbach' α 신뢰도=.67	
요인 3. 성형관리지향	요인부하량
나는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75
나는 미용성형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72
나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성형수술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71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63
나는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57
고유치 3.02 분산(%) 10.06 누적변량(%) 34.28 Cronbach' α 신뢰도=.84	

요인 4. 피부관리지향	요인부하량
나는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한다.	.73
나는 클렌징제품이나 목욕용품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70
나는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에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56
나는 세안 후 기초제품(스킨, 로션 등)을 반드시 사용한다.	.55
나는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한다.	.52
고유치 2.60 분산(%) 8.68 누적변량(%) 42.95 Cronbach' a 신뢰도=.79	
요인5. 화장관리지향	요인부하량
나는 잡지를 주의 깊게 본 후 화장법을 따라하거나 응용할 때가 있다.	.81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은 한번쯤 사보게 된다.	.66
만나는 사람이나 외출하는 장소에 따라 화장방법을 바꾼다.	.63
외출해서도 화장을 고치는 등 화장에 신경을 쓴다.	.54
나는 화장을 하면서 자기만족을 느낀다.	.52
고유치 2.46 분산(%) 8.19 누적변량(%) 51.14 Cronbach' a 신뢰도=.78	
요인 6. 체중(몸매)관리지향	요인부하량
나는 스포츠센터에서 몸매관리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71
나는 몸매관리를 위해 체형보정용 속옷(브래지어, 거들)을 꼭 입고 다닌다.	.67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59
나는 전신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다.	.52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음식은 안 먹는다.	.50
고유치 1.91 분산(%) 6.38 누적변량(%) 57.52 Cronbach' a 신뢰도=.66	

4) 화장의 심리적 효용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요인분석을 한 결과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6개 요인이 설명하는 누적변량의 총 백분율은 61.17%이다.

요인 1은 '외모 상승의 즐거움'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66 이상이고 모두 7문항이다. 고유치는 6.60, Cronbach' a 신뢰도는 .86이며, 요인 2는 자신감향상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고 모두 7문

항이다. 고유치는 3.83, 전체변량은 Cronbach' a 신뢰도는 .74이다.

요인 3은 '적극적 심리변화'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1 이상이고 모두 7문항이다. 고유치는 3.30, Cronbach' a 신뢰도는 .86이며, 요인 4는 '유행추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6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다. 고유치는 3.20, Cronbach' a 신뢰도는 .78이며, 요인 5는 '타인에 대한 예의'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1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다. 고유치는 2.53, Cronbach' a 신뢰도는 .77이며, 요인 6은 '자기변신의 도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57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다. 고유치는 1.34, Cronbach' a 신뢰도는 .74이다.

이에 화장의 심리적 효용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6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은 <표 9>와 같이 '외모 상승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 '적극적 심리변화', '유행 추구', '타인에 대한 예의', '자기 변신의 도구'라고 각각 명명하였다.

이화순(2002)의 연구에서는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한 요인 분석으로 '적극성의 상승', '변화의 즐거움', '자기부족감 보완', '자기가치의 표현', '타인에 대한 예의수행', '변신의 도구'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낮은 신뢰도를 보인 '자기가치의 표현'의 요인은 본 연구에서 '유행추구' 관련 문항으로 요인을 도출하였고, 화장이미지에서는 4개의 요인 즉, 세련성, 품위성, 호의성, 개성이라고 명명하여 도출하였다.

새로운 스타일 및 계절과 시대에 민감한 화장의 특성상 '유행추구' 요인은 화장품 구입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화장방법이나 제품에 관한 정보나 조언 등의 언어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요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하위변인에 관한 요인분석은 <표 9>와 같다.

<표 9>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요인분석

(N=579)

요인 1. 외모 상승의 즐거움	요인부하량
화장을 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72
화장을 하면 표정이 밝아진다.	.71
화장을 하면 예뻐진다고 생각한다.	.70
화장을 하면 자신의 인상이 바뀌는 것 같다.	.70
나는 화장행위 그 자체가 즐겁다.	.70
화장을 하면 창조의 즐거움이 있다.	.67
화장을 하면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66
고유치 6.60 분산(%) 19.40 누적변량(%) 19.40 Cronbach' α 신뢰도=.86	
요인 2. 자신감 향상	요인부하량
화장을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	.73
화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신있게 행동한다.	.70
화장을 하지 않으면 표정이 굳어진다.	.62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아파보인다고 생각한다.	.55
화장을 하지 않으면 초라해 보인다.	.52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51
화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소극적이 된다.	.50
고유치 3.83 분산(%) 11.27 누적변량(%) 30.67 Cronbach' α 신뢰도=.74	
요인 3. 적극적 심리 변화	요인부하량
화장을 하면 다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69
화장을 하면 목소리의 톤이 밝아진다.	.69
화장을 하면 안심이 된다.	.64
화장을 하면 밖으로 나가고 싶다.	.62
화장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59
화장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	.55
화장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51
고유치 3.30 분산(%) 9.71 누적변량(%) 40.38 Cronbach' α 신뢰도=.86	

요인 4. 유행추구	요인부하량
나는 화장품을 살 때 최근 유행경향이 어떤지 신경을 쓴다.	.73
유행하는 컬러의 립스틱은 사게 된다.	.69
유행하는 화장법에 관심이 많다.	.56
주변사람들에게 화장법을 조언해 준 적이 있다.	.56
고유치 3.20 분산(%) 9.41 누적변량(%) 49.79 Cronbach' a 신뢰도=.78	
요인 5. 타인에 대한 예의	요인부하량
화장을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71
화장은 대인관계를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6
화장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6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례라고 생각한다.	.55
화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51
고유치 2.53 분산(%) 7.43 누적변량(%) 57.23 Cronbach' a 신뢰도=.77	
요인 6. 자기변신의 도구	요인부하량
화장을 하면 화려해 보인다.	.74
화장한 모습은 성적매력이 느껴진다.	.65
눈에 띄는 두드러진 화장은 하지 않는다.	.60
화장을 하면 어른스러워 보인다.	.57
고유치 1.34 분산(%) 3.94 누적변량(%) 61.17 Cronbach' a 신뢰도=.74	

2.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자기애성향, 신체 의식, 외모관리 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차이

1)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자기애성향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차이를 보면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총 자기애성향의 경우 20대와 30대가 평균이 각

각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가 3.0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자기주도적’ 자기애의 경우에도 20대가 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경우 30대가 3.22로 30, 50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5$).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총 자기애 성향의 경우 20, 30대 집단이 40, 50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 또한 20대, 30대 집단이 40대, 50대 연령 집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총 자기애성향의 경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총 자기애성향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강선희,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애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결과는 평균이 2.82이고, 박세란(2004)의 연구에서 서울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애 측정결과가 평균이 2.55와 비교하여 김종욱(2010)의 중년여성의 자기애성향은 평균이 2.53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보아도 연령이 낮고 미혼일 경우 자기애성향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해준다.

외모관리 비용별 자기애성향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 총 자기애성향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자기주도적’ 자기애의 경우 70만원 초과가 평균 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미만은 평균 3.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타인의존적’, 총 자기애 성향 또한 70만원 초과 집단이 각각 3.46, 3.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미만 그룹의 자기애 성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자기에성향

(N=579)

변인	자기애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총 자기애 성향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연령	20대	3.33(.54)a	3.21(.62)	3.27(.46)
	30대	3.33(.62)a	3.22(.60)	3.27(.52)
	40대	3.20(.56)b	3.07(.56)	3.14(.49)
	50대	3.12(.69)c	3.00(.70)	3.06(.66)d
	합계	3.28(.59)b	3.16(.62)	3.22(.52)
F		3.161*	3.152*	4.336**
Duncan		a,b>c,d	b,a>c,d	a,b,>c,d
결혼 여부	예	3.19(.61)	3.08(.63)	3.14(.56)
	아니오	3.35(.56)	3.22(.62)	3.29(.47)
t		-3.170**	-2.575**	-3.356***
외모 관리 비용	10만원 미만	3.08(.54)c	2.98(.56)bc	3.03(.45)bc
	10~20만원 미만	3.15(.53)c	3.07(.63)bc	3.11(.50)c
	20~30만원 미만	3.29(.48)bc	3.21(.52)b	3.25(.41)b
	30~50만원 미만	3.39(.72)b	3.16(.71)b	3.28(.62)b
	50~70만원 미만	3.53(.44)ab	3.44(.62)a	3.48(.45)a
	70만원 초과	3.66(.56)a	3.46(.59)a	3.56(.50)a
	합계	3.28(.59)	3.16(.62)	3.22(.51)
F		11.206***	6.680***	11.990***
Duncan		f,e>d,c>b,a	f,e>c,d>b,a	f,e>d,c>b,a
사회 계층	하	3.09(.51)c	3.06(.53)c	3.07(.41)c
	중	3.26(.58)b	3.15(.64)b	3.21(.53)b
	상	3.54(.58)a	3.28(.65)a	3.41(.53)a
	합계	3.28(.59)	3.16(.62)	3.22(.51)
F		18.487***	3.608*	12.795***
Duncan		c>b>a	c>b,a	c>b>a
행복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3.11(.60)bc	3.04(.58)c	3.07(.47)
	그저 그렇다	3.18(.68)bc	3.28(.65)a	3.23(.60)
	행복한 편이다	3.31(.54)b	3.15(.58)b	3.23(.47)
	매우 행복하다	3.42(.60)a	3.02(.77)c	3.22(.57)
	합계	3.28(.59)	3.16(.62)	3.22(.52)
F		3.600*	2.987*	.789
Duncan		d,c>b,a	b>c,a,d	-

*p<.05, **p<.01, ***p<.001 알파벳은 Duncan 다중범위검증 결과, a>b>c>d>e>f (p<0.05)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50~70만원 미만, 70만원 초과 집단이 50만원 미만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총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자기에, ‘타인의존적’ 자기에 또한 50~70만원 미만, 70만원 초과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행복도에 따라서는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 ‘자기주도적’ 자기에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복도가 낮을수록 ‘자기주도적’ 자기에의 수치도 낮아지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행복도에 따른 ‘타인의존적’ 자기에의 경우에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이 3.28로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 .05$), 총 자기에성향의 경우에는 행복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자기주도적’ 자기에는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행복감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의존적’ 자기에의 경우에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회계층에 따른 자기에성향의 경우 ‘자기주도적’ 자기에, ‘타인의존적’ 자기에, 총 자기에성향, 모두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평균 3.54, 3.28, 3.41로 ‘중’, ‘하’ 집단의 응답자들보다 자기에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자기에성향은 상>중>하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자기에과 ‘타인의존적’ 자기에의 경우에도 사회계층 ‘상’에 속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김종욱(2010)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에성향은

연령, 학력, 직업유무,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본인이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수준은 다소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중년 여성의 환경 특성상 금전적 문제,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연구대상의 52.9%가 본인이 느끼는 사회계층은 중산층 정도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신체 의식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신체 의식의 차이를 보면 <표 11>과 같다. 먼저 연령별로는 총 신체 의식의 경우 20대가 3.53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38, 40대가 3.14, 50대 이상이 3.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신체 자신감’, ‘신체 불만족’, ‘신체 관리 노력’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대보다 20대가 상대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01$). ‘신체 자신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치가 낮아졌으며, ‘신체 불만족’의 경우 20대가 2.95로 가장 높았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총 신체 의식의 경우 20대 > 30대 > 40, 50대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20대의 총 신체 의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 자신감’과 ‘신체 관리 노력’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 불만족’은 20, 30대 집단이 40, 50대 집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신체 자신감’, ‘신체 불만족’, ‘신체 관리 노력’, 총 신체 의식은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신체 자신감’, ‘신체 불만족’, ‘신체 관리 노력’, 총 신체 의식의 모두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영분(2011)의 연구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일 때 신체적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신체의식

(N=579)

신체의식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신체관리노력	총 신체의식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연령	20대	3.70(.64)a	2.95(.87)a	3.93(.57)a	3.53(.48)a
	30대	3.52(.65)b	2.85(.80)ab	3.76(.64)b	3.38(.50)b
	40대	3.22(.63)bc	2.59(.80)c	3.62(.55)bc	3.14(.45)c
	50대	3.10(.69)c	2.52(.74)c	3.57(.71)c	3.05(.59)d
	합계	3.49(.69)	2.81(.84)	3.79(.62)	3.36(.53)
F		22.828***	7.485***	9.338***	24.084***
Duncan		a>b>c,d	a,b>c,d	a>b>c,d	a>b>c,d
결혼 여부	예	3.25(.67)	2.64(.81)	3.63(.65)	3.17(.53)
	아니오	3.69(.65)	2.95(.85)	3.92(.57)	3.52(.48)
t		-7.610***	-4.257***	-5.552***	-8.015***
외모 관리 비용	10만원 미만	3.29(.65)c	2.67(.81)	3.68(.60)c	3.21(.48)c
	10~20만원 미만	3.39(.73)bc	2.73(.95)	3.77(.65)b	3.29(.57)c
	20~30만원 미만	3.61(.66)b	2.90(.78)	3.79(.56)b	3.43(.50)b
	30~50만원 미만	3.45(.68)c	2.99(.74)	3.71(.65)b	3.37(.56)b
	50~70만원 미만	3.77(.67)a	2.71(.93)	3.97(.68)a	3.49(.54)b
	70만원 초과	3.84(.51)a	2.92(.76)	4.06(.53)a	3.61(.38)a
합계		3.49(.68)	2.81(.84)	3.79(.62)	3.36(.53)
F		7.512***	2.171	3.688**	5.448***
Duncan		f,e,c>d,b,a	-	f,e>c,b,d,a	f>e,c,d>b,a
사회 계층	하	3.40(.69)	2.84(.87)	3.72(.62)b	3.32(.51)
	중	3.49(.70)	2.80(.80)	3.77(.63)b	3.35(.54)
	상	3.62(.63)	2.81(.89)	3.93(.56)a	3.45(.51)
	합계	3.49(.68)	2.81(.84)	3.79(.62)b	3.36(.53)
F		2.961	.111	3.631*	2.054
Duncan		-	-	c>b,a	
행복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3.24(.83)	2.97(.77)a	3.44(.71)bc	3.22(.64)
	그저 그렇다	3.49(.74)	2.84(.88)b	3.69(.71)c	3.33(.61)
	행복한 편이다	3.51(.64)	2.84(.82)b	3.85(.56)a	3.40(.48)
	매우 행복하다	3.55(.70)	2.53(.89)c	3.88(.60)a	3.32(.52)
합계		3.49(.69)	2.81(.84)b	3.79(.62)ab	3.36(.53)
F		1.535	2.833*	5.302***	1.487
Duncan		-	a,b,c>d	d,c,b>a	-

*p<.05, **p<.01, ***p<.001 알파벳은 Duncan 다중범위검증 결과, a>b>c>d>e>f (p<0.05)

외모관리 비용별 신체의식의 경우 총 신체의식은 70만원 초과가 평균 3.61로 가장 높았으며, 10만원 미만이 3.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또한 신체의식의 하위 요인인 ‘신체자신감’($p<.001$), ‘신체관리노력’($p<.01$)의 경우에도 70만원 초과 집단이 각각 3.84, 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불만족’의 경우에는 외모관리비용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신체의식은 70만원 초과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인 ‘신체자신감’은 70만원 초과, 50~7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집단에서, ‘신체관리노력’은 70만원 초과, 50~70만원 미만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행복도에 따른 신체의식을 살펴보면 ‘신체자신감’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신체불만족’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이 2.97로 다른 집단보다 ‘신체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05$).

‘신체관리노력’은 ‘행복한 편이다’라는 응답자들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행복도가 낮을수록 ‘신체관리노력’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p<.001$).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신체불만족’은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관리노력’의 경우에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회계층에 따른 신체의식의 경우 ‘신체관리노력’($p<.05$)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총 신체의식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관리노력’의 경우 사회계층이 ‘상’에 속하는

집단이 평균 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사회계층 수준이 높은 ‘상’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신체관리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중욱(2010)의 연구에서도 본인이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또한 황진숙(1998)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3)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보면 <표 12>와 같다. 연령별 외모관리행동을 보면, 20대 3.42, 30대 3.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가장 활발하였고 모든 연령대가 비교적 활발한 외모관리행동을 보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전체적인 외모관리행동은 20, 30대 > 40, 50대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20대, 30대 집단이 40대, 50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는 ‘피부관리지향’의 경우 40대가 3.60으로 가장 높았는데, 김성희(2009)의 연구에서 40대는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지향’이 가장 결과치가 높았던 점과 일치한다. ‘체중(몸매)관리지향’은 20대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형관리지향’($p < .001$), ‘헤어관리지향’($p < .01$), ‘화장관리지향’($p < .01$), ‘의복관리지향’($p < .001$)의 경우에도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외모관리행동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에서 많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체중, 성형, 의복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박주현(2010)의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체중관리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표 12> 인구통계적 변인, 행복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N=579)

변인	외모관리행동	피부관리	체중(몸매)	성형관리	헤어관리	화장관리	의복관리	총
		지향	관리지향	지향	지향	지향	지향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연령	20대	3.52(.76)	2.78(.86)a	3.68(.73)a	3.56(.72)a	3.32(.93)a	3.67(.71)a	3.42(.55)a
	30대	3.59(.76)	2.74(.73)a	3.34(.77)ab	3.43(.72)ab	3.22(.84)a	3.44(.70)b	3.29(.53)b
	40대	3.60(.74)	2.61(.76)ab	3.11(.77)b	3.23(.78)b	2.97(.82)b	3.29(.69)bc	3.13(.54)bc
	50대	3.45(.73)	2.48(.66)b	3.14(.61)b	3.41(.80)ab	3.03(.78)b	3.03(.77)c	3.07(.60)c
	합계	3.54(.75)	2.70(.79)	3.43(.77)	3.46(.75)	3.20(.88)	3.46(.75)	3.30(.57)
F		.727	3.239*	18.595***	4.142**	4.327**	17.829***	10.534***
Duncan		-	a,b>c>d	a>b>d,c	a,b,d>c	a,b>d,c	a>b,c>d	a,b>c,d
결혼	예	3.49(.75)	2.61(.69)	3.19(.70)	3.31(.76)	3.06(.78)	3.23(.74)	3.14(.54)
	아니오	3.57(.76)	2.78(.86)	3.63(.76)	3.58(.72)	3.31(.94)	3.66(.70)	3.42(.56)
	t	-1.196	-2.340*	-6.766***	-4.207***	-3.231***	-6.722***	-5.712***
외모관리비용	10만원 미만	3.21(.78)c	2.41(.65)c	3.20(.78)d	3.21(.78)cd	2.80(.85)c	3.10(.62)bc	2.99(.48)cd
	10~20만원 미만	3.48(.65)bc	2.62(.78)bc	3.38(.73)c	3.39(.66)c	3.11(.76)bc	3.28(.68)c	3.21(.49)c
	20~30만원 미만	3.51(.67)bc	2.74(.67)b	3.45(.68)bc	3.43(.74)c	3.34(.83)b	3.58(.75)b	3.34(.51)bc
	30~50만원 미만	3.68(.80)b	2.92(.83)a	3.44(.74)bc	3.54(.77)b	3.43(.92)a	3.63(.77)b	3.42(.64)b
	50~70만원 미만	3.86(.80)a	2.74(.92)b	3.51(.87)b	3.77(.68)ab	3.46(.94)a	3.81(.82)a	3.53(.59)ab
	70만원 초과	3.99(.52)a	3.09(.88)a	3.94(.65)a	3.86(.62)a	3.47(.82)a	3.93(.52)a	3.71(.42)a
	합계	3.54(.75)	2.70(.79)	3.43(.76)	3.46(.74)	3.20(.87)	3.46(.74)	3.30(.56)
F		11.313***	7.671***	7.086***	7.607***	8.816***	15.407***	17.380***
Duncan		f,e>d,c,b>a	f,d>c,e,b>a	f>e,c,d,b>a	f,e>d,c,b>a	f,e,d,c>b>a	f,e>d,c>b,a	f>e,d,c,b>a
사회계층	하	3.39(.72)c	2.59(.72)b	3.36(.80)	3.35(.86)c	3.08(.91)c	3.27(.72)c	3.17(.55)c
	중	3.54(.74)b	2.66(.73)bc	3.43(.77)	3.43(.70)b	3.16(.85)ab	3.46(.75)b	3.27(.55)b
	상	3.69(.77)a	2.94(.94)a	3.52(.70)	3.64(.67)a	3.44(.87)a	3.69(.69)a	3.49(.57)a
	합계	3.54(.75)	2.70(.79)	3.43(.76)	3.46(.74)	3.20(.87)	3.46(.74)	3.30(.56)
F		4.727**	6.624***	1.373	4.755**	5.714**	9.785***	9.696***
Duncan		c>b>a	c>b,a	-	c>b,a	c>b,a	c>b>a	c>b,a
행복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3.39(.72)	2.98(.76)	3.41(.90)	3.23(.90)	3.26(.96)	3.37(.92)	3.27(.74)
	그저 그렇다	3.43(.84)	2.70(.84)	3.48(.77)	3.47(.81)	3.09(.93)	3.34(.83)	3.24(.64)
	행복한 편이다	3.58(.71)	2.66(.75)	3.43(.75)	3.46(.70)	3.22(.85)	3.50(.69)	3.31(.52)
	매우 행복하다	3.66(.74)	2.77(.89)	3.33(.80)	3.51(.76)	3.30(.89)	3.59(.79)	3.36(.52)
	합계	3.54(.75)	2.70(.79)	3.43(.80)	3.46(.75)	3.20(.88)	3.46(.75)	3.30(.57)
F		2.089	1.553	.537	1.010	1.062	2.109	.737

*p<.05, **p<.01, *p<.001 알파벳은 Duncan 다중범위검증 결과, a>b>c>d>e>f (p<0.05)

전현진, 정명선(2010)의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을 파악한 결과 화장관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화장행동이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외모관리 중 하나로 자리잡은 데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하위변인 중 ‘성형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은 20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중(몸매)관리지향’과 ‘화장관리지향’의 경우에는 20대, 30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어관리지향’의 경우에는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년 여성의 생리적 변화에 따른 머리염색이나 모발관리 등의 신체적 변화에 직접 외모관리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 여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은 ‘의복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기혼은 ‘피부관리지향’이 높게 나타나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체중(몸매)관리지향’,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관리지향’이 높은 결과가 나온 박주현(2010)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적극적 외모관리이며 외모변형인 성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최근 수명연장으로 인해 노화 방지를 위한 피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외모관리 비용별로 보면, 외모관리행동의 경우 70만원 초과가 평균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미만이 2.99로 가장 낮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피부관리지향’의 경우 70만원 초과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관리 비용이 감소할수록 피부관리 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체중(몸매)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은 외모관리 비용이 70만원 초과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p < .001$).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관리행동은 70만원 초과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성형관리지향’의 경우에도 70만원 초과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피부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은 70만원 초과, 50~70만원 초과 집단에서, ‘체중(몸매)관리지향’은 70만원 초과, 30~50만원 미만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화장관리지향’은 20만원 초과 집단이 20만원 미만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행복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경우에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하위변인 중 ‘성형관리지향’을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전체적인 외모관리행동의 경우 ‘상’ 3.49, ‘중’ 3.2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외모관리행동의 하위변인인 ‘피부관리지향’($p < .01$), ‘체중(몸매)관리지향’($p < .001$), ‘헤어관리지향’($p < .01$), ‘화장관리지향’($p < .01$), ‘의복관리지향’($p < .001$)의 경우 사회 계층이 ‘상’이라고 응답한 그룹에서 관리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외모관리행동의 경우 상>중, 하의 2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계층이 ‘상’에 속하는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외모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변인들의 경우 ‘피부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 모두 ‘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중·하 집단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외모에 대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여성들로 하여금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며 사회적 이상미(理想美)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려는 경향이 높아 화장, 헤어, 피부, 의복과 같은 외모관리행동 뿐 아니라 적극적 외모관리행동인 체중, 성형도 역시 외모관리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화장의 심리적 효용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차이를 보면 <표 13>과 같다.

연령에 따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차이를 보면 하위변인별로 ‘적극적 심리변화’의 경우 20대가 3.39, 30대가 3.2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상승의 즐거움’은 20대가 3.63, 30대가 3.50 순으로 높았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5$). 또한 ‘자신감 향상’, ‘유행추구’, ‘자신변신의 도구’에서도 다른 연령대보다 20대가 높았으며, ‘타인에 대한 예의’는 50대에서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상승의 즐거움’은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추구’는 20, 30대 집단이 40, 50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예의수행이나 대인관계지향이 증가한다고 밝힌 선행연구(이화순, 2002)의 결과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20, 40대는 ‘자신변신의 도구’로 30대, 50대는 ‘타인에 대한 예의’로 화장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40대는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로 재취업의 기회가 많은 시기로 화장행동이 활발해지며 30대의 경우는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해 급격한 외모의 변화를 겪는 시기이므로 ‘타인에 대한 예의’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을 보면 ‘외모상승의 즐거움’($p < .01$), ‘유행추구’($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외모상승의 즐거움’, ‘유행추구’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외모관리 비용별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경우, 전체적인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서 70만원 초과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미만은 3.11로 가장 낮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결과, 전체적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은 10만원 미만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하위유형별로는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상승의 즐거움’은 50~70만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추구’의 경우 30~50만원 미만 집단이 3.61로 다른 그룹들보다 높았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01$). 또한 ‘자신감 향상’($p < .001$), ‘타인에 대한 예의’($p < .001$), ‘자기변신의 도구’($p < .01$)의 경우에는 70만원 초과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게 나타났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 실시 결과, ‘적극적 심리변화’는 50~70만원, 70만원 초과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외모상승의 즐거움’과 ‘자신감 향상’은 10만원 미만 집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행추구’의 경우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타인에 대한 예의’와 ‘자기변신의 도구’는 70만원 초과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행복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총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5$), ‘외모상승의 즐거움’의 경우에도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3.61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5$). ‘타인에 대한 예의의 경우’에는 ‘행복한 편이다’ 3.73, ‘매우 행복하다’ 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1$). ‘자신감 향상’의 경우에만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평균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수록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외모상승의 즐거움’과 ‘타인에 대한 예의’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응답자들이 행복감이 높은 응답자들보다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화장을 통해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지거나 단점을 보완하는 것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 일반 사회인 뿐 아니라 고령자, 만성질환 환자, 피부질환 환자, 암 환자, 부랑자 및 사회복지층에게 자신감 향상 및 치유과정에서의 심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경우 ‘상’ 집단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 집단이 3.26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하위요인별로는 ‘적극적 심리변화’의 경우 ‘상’ 집단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p<.01$), ‘외모상승의 즐거움’($p<.001$), ‘유행추구’($p<.001$)의 경우에도 ‘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예의’($p<.05$), ‘자기변신의 도구’($p<.05$)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층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 집단이 다른 사회복지층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Duncan방법에 의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은 상>중, 하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층이 ‘상’에 속하는 집단의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변인들의 경우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상승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은 ‘상’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높았으며, ‘타인에 대한 예의’와 ‘자기변신의 도구’는 ‘중’,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화장의 심리적 효용

(N=579)

변인	화장의 심리적 효용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상승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	유행추구	타인에 대한 예의	자기변신의 도구	총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연령	20대	3.39(.83)	3.63(.73)a	3.11(.89)	3.38(1.82)a	3.62(.81)	3.67(.70)	3.47(.71)
	30대	3.28(.71)	3.50(.69)b	3.08(.92)	3.24(.78)a	3.67(.81)	3.58(.64)	3.39(.56)
	40대	3.14(.67)	3.37(.61)bc	2.94(.77)	2.98(.84)bc	3.57(.69)	3.62(.52)	3.27(.50)
	50대	3.26(.78)	3.41(.78)bc	3.09(.78)	2.92(.80)bc	3.75(.83)	3.64(.58)	3.33(.66)
	합계	3.31(.78)	3.53(.71)	3.08(.86)	3.22(1.39)	3.65(.80)	3.64(.65)	3.40(.64)
F		2.146	3.428*	.770	3.074*	.740	.435	2.137
Duncan		-	a>b,d,c	-	a,b>c,d	-	-	-
결혼 여부	예	3.25(.68)	3.43(.66)	3.07(.84)	3.03(.78)	3.68(.76)	3.61(.56)	3.34(.55)
	아니오	3.35(.84)	3.61(.75)	3.08(.89)	3.38(1.72)	3.62(.83)	3.65(.71)	3.45(.71)
t		-1.504	-2.834**	-.115	-2.840**	.768	-.672	-1.895
외모 관리 비용	10만원 미만	3.00(.76)	3.26(.69)c	2.77(.75)c	2.80(.85)c	3.36(.78)cd	3.50(.70)bc	3.11(.55)cd
	10~20만원 미만	3.28(.75)c	3.51(.71)bc	3.12(1.02)bc	3.06(.88)bc	3.65(.79)c	3.66(.67)b	3.38(.61)c
	20~30만원 미만	3.41(.75)b	3.63(.66)b	3.14(.77)bc	3.38(.77)b	3.73(.75)b	3.59(.58)b	3.48(.52)bc
	30~50만원 미만	3.36(.75)bc	3.56(.76)bc	3.13(.87)bc	3.61(2.82)a	3.73(.88)b	3.63(.63)b	3.49(.86)bc
	50~70만원 미만	3.58(.78)a	3.76(.71)a	3.21(.87)b	3.35(.98)b	3.70(.75)b	3.70(.65)b	3.55(.62)b
	70만원 초과	3.56(.70)a	3.74(.61)a	3.36(.68)a	3.48(.69)ab	3.94(.62)a	3.92(.51)a	3.67(.46)a
	합계	3.31(.77)	3.53(.71)	3.08(.86)	3.22(1.38)	3.65(.79)	3.64(.64)b	3.40(.64)
F		6.379***	5.666***	4.549***	4.560***	4.899***	3.292**	7.882***
Duncan		e,f>c,d,b>a	e,f,c,d,b>a	f,e,c,d,b>a	d,f,c,e>b,a	f>c,d,e,b>a	f>e,b,d,c,a	f,e,d,c,b>a
사회 계층	하	3.16(.79)c	3.38(.71)c	3.04(.85)	3.00(.88)bc	3.50(.81)b	3.49(.61)b	3.26(.61)c
	중	3.29(.75)b	3.51(.72)b	3.08(.89)	3.14(1.08)b	3.67(.77)ab	3.69(.64)a	3.40(.62)b
	상	3.49(.76)a	3.72(.64)a	3.11(.81)	3.65(2.19)a	3.75(.79)a	3.66(.68)a	3.57(.69)a
	합계	3.31(.77)b	3.53(.71)	3.08(.86)	3.22(1.38)	3.65(.79)	3.64(.64)	3.40(.64)
F		5.513**	7.026***	.220	7.618***	3.049*	4.134*	6.707***
Duncan		c>b,a	c>b,a	-	c>b,a	c,b>a	b,c>a	c>b,a
행복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	2.98(.739)	3.13(.774)b	3.03(.752)	2.88(.931)	3.34(.923)cd	3.39(.786)	3.12(.651)c
	그저 그렇다	3.27(.816)	3.48(.762)ab	3.17(.831)	3.06(.869)	3.52(.884)c	3.57(.657)	3.34(.673)b
	행복한 편이다	3.35(.736)	3.57(.658)a	3.06(.873)	3.27(1.517)	3.73(.700)a	3.68(.582)	3.44(.600)a
	매우 행복하다	3.32(.847)	3.61(.780)a	2.97(.942)	3.48(1.749)	3.67(.882)b	3.71(.797)	3.46(.715)a
	합계	3.31(.774)	3.53(.714)	3.08(.864)	3.22(1.387)	3.65(.795)b	3.64(.646)	3.40(.641)a
F		2.096	3.750*	.898	2.033	3.818**	2.480	2.795*
Duncan		-	d,c,b>a	-	-	c,d,b>a	-	d,c,b>a

*p<.05, **p<.01, ***p<.001 알파벳은 Duncan 다중범위검증 결과, a>b>c>d>e>f (p<0.05)

3. 여성들의 자기에성향의 특성

여성들의 자기에성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에성향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자기에성향은 평균 $3.22 \pm .519$ 로 나타났다.

자기에성향의 하위변인인 ‘자기주도적’은 평균 $3.28 \pm .590$, ‘타인의존적’의 경우는 $3.16 \pm .624$ 로 ‘자기주도적’ 자기에가 ‘타인의존적’ 자기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4>는 자기에성향 평균과 표준편차에 관한 내용이다.

<표 14> 자기에성향 평균과 표준편차

(N=579)

자기에성향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기주도적	579	1	5	3.28	.590
타인의존적	579	2	5	3.16	.624
자기에성향 전체	579	1	5	3.22	.519

강은영, 이영호(206)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적’ 자기에 요인, ‘타인의존적’ 자기에 요인과 불안, 우울, 일반적 부적응, 자존감, 다차원적 자기개념, 적대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적’ 자기에 요인은 자존감($r=.37, p<.01$), 자기개념($r=.30,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타인의존적’ 자기에 요인은 불안($r=.18, p<.01$), 일반적인 부적응($r=.13, p<.05$), 적대감($r=.25, p<.01$)과 같은 특성들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주도적’ 자기에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고 과대자기(grandiose self)를 보이더라

도 지나치게 부적응적이지 않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어 ‘자기주도적’ 자기애성향을 적응적이고 건강한 자기애 측면이라고 추론하였다.

‘타인의존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기중심적 생각과 정서가 많아 적응상의 어려움과 주관적 불편함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적 자기가치는 불안정하고 취약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다 긍정적인 자기애성향을 가진 자기주도적 자기애성향자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4. 자기애성향과 신체의식의 관계

자기애성향의 두 요인인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신체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자기애성향과 신체의식의 상관관계

(N=579)

신체의식 \ 자기애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자기애성향 전체
신체자신감	.539**	.395**	.543**
신체불만족	.184**	.359**	.323**
신체관리노력	.373**	.251**	.363**
신체의식전체	.491**	.467**	.559**

*p<.05, **p<.01

<표 15>의 자기애성향과 신체의식의 상관관계를 보면, 서로 유의 수준 .01에서 상관계수 $r=.559$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p<.01$). 자기애

성향 전체와 ‘신체자신감’의 경우 $r=.543(p<.01)$ 으로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자기애성향과 신체의식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신체자신감’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신체자신감’ 및 ‘신체관리노력’은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기애성향이 높으면 신체의식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종욱(2010)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신체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외현적 자기애와 신체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중년여성에게 한정되어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중년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면서 부적응적 외모관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김해정(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성향이 높은 집단이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표 16> 자기애성향이 신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N=579)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신체의식	자기주도적	.314	.349	8.415***	R ² =.314
	타인의존적	.259	.305	7.365***	F=116.222***
	자기애성향 전체	.571	.559	15.225***	R ² =.313 F=231.788***

***p<.001

<표 16>은 자기애성향이 신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자기애성향 전체의 회귀계수 $\beta=.559(p<.0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31.3% ($R^2=.31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F=231.788, p<.001$). 또

한 자기애의 하위유형인 ‘자기주도적’ 자기애($\beta=.349, p<.001$), ‘타인의존적’ 자기애($\beta=.305, p<.001$)의 경우에도 신체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1.4%($R^2=.314$)로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16.222, p<.001$). 따라서 자기애성향이 높아질수록 신체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애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시하려는 강한 특징으로 인해 외모를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려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 자기애성향, 신체외식과 외모관리행동의 관계

자기애성향 및 신체외식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7>, <표 18>과 같다. 자기애성향 전체($r=.547, p<.01$), 신체외식 전체($r=.698, p<.01$) 모두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7>을 보면,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요인 모두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타인의존적’ 자기애보다 정적 상관관계가 높았다. ‘피부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에서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타인의존적’ 자기애 보다 더욱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그 외의 ‘체중(몸매)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의 경우에도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의복관리지향’이 $r=.511(p<.01)$ 로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의복관리지향’이 $r=.352(p<.01)$ 로 역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외모관리행동 전체는 $r=.533(p<.01)$,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외모관리행동 전체는 $r=.406(p<.01)$ 로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자기애성향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

(N=579)

외모관리행동 \ 자기애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자기애성향 전체
피부관리지향	.385**	.228**	.355**
체중(몸매)관리지향	.337**	.327**	.390**
성형관리지향	.292**	.288**	.340**
헤어관리지향	.384**	.265**	.377**
화장관리지향	.358**	.270**	.366**
의복관리지향	.511**	.352**	.502**
외모관리행동전체	.533**	.406**	.547**

**p<.01

김해정(2008)의 연구에서는 ‘타인의존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체만족도와 자신감이 낮아 적극적 외모관리 형태인 성형수술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고, 헤어관리, 화장에 의한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 가치 순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타인의존적’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의복관리지향’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체중(몸매)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김해정(2008)의 연구와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의 차이 때문이라 유추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와 의복소비가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의복태도나 의복구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미용과 패션업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8>을 보면 ‘신체자신감’과 ‘의복관리지향’의 상관계수는 $r=.643(p<.01)$ 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신체불만족’과 ‘체중(몸매)관리지향’은 $r=.485(p<.01)$, ‘신체관리노력’과 적극적 외모관리행동이라 할 수 있는 ‘성형

관리지향’은 $r=.571(p<.01)$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신체외식과 ‘의복관리지향’의 상관계수는 $r=.635(p<.01)$ 로서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체외식이 높아질수록 외모관리행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신체외식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

(N=579)

신체외식 외모관리행동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신체관리노력	신체외식 전체
피부관리지향	.411**	.157**	.430**	.442**
체중(몸매)관리지향	.282**	.485**	.152**	.450**
성형관리지향	.437**	.245**	.571**	.550**
헤어관리지향	.473**	.140**	.442**	.465**
화장관리지향	.376**	.301**	.317**	.455**
의복관리지향	.643**	.287**	.495**	.635**
외모관리행동 전체	.611**	.383**	.562**	.698**

** $p<.01$

김종욱(2010)의 연구에서도 신체만족도 전체와 외모관리행동 하위요인 중 ‘의복관리행동’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신체에 만족하는 사람은 의복에 관심이 많으며 옷을 입을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심리적 행복도를 느끼는 심리적 요인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신체적 자아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정신적 안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감정이 우울한 경우에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되어 자신의 외모나 의복에 대한 감정상태가 변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자기에성향, 신체외식 및 외모관리행동의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자기에성향과 신체외식이 높으면 외모관리행동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자기에성향 및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자기에성향, 신체외의식 모두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영미(2009)의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외모관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리적 위축이 되는 행동과 성격을 보인다는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김해정(2008)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소비가치나 외모관여도가 높다고 밝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김유성(2011)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체중(몸매)관리지향’, ‘피부관리지향’을 통해 심리적인 만족과 자신감을 얻고 싶은 기대욕구가 가장 높았던 반면, 실제 외모관리 행동에서는 ‘화장관리지향’과 ‘헤어관리지향’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는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로서, 자기에성향의 경우 회귀계수 $\beta=.547(p<.0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29.9%($R^2=.299$)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F=216.333, p<.001$).

<표 19>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N=579)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외모 관리 행동	자기주도적	.421	.439	10.587***	R ² =.316
	타인의존적	.184	.203	4.890***	F=117.097***
	자기에성향 전체	.596	.547	14.708***	R ² =.299 F=216.333***

***p<.001

‘자기주도적’ 자기애($\beta=.439, p<.001$), ‘타인의존적’ 자기애($\beta=.203, p<.001$)의 경우에도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애성향이 높아질수록 외모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은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로서 신체의식의 경우 회귀계수 $\beta=.698(p<.0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48.8%($R^2=.488$)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F=482.356, p<.001$).

<표 20>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N=579)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외모 관리 행동	신체자신감	.285	.349	8.980***	R ² =.476 F=152.583***
	신체불만족	.163	.251	7.433***	
	신체관리노력	.305	.332	8.899***	
	신체의식 전체	.746	.698	21.963***	R ² =.488 F=482.356***

***p<.001

‘신체자신감’($\beta=.349, p<.001$), ‘신체불만족’($\beta=.251, p<.001$), ‘신체관리노력’($\beta=.332, p<.001$)의 경우에도 외모관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의식이 높아질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김종욱(2010)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현옥, 구양숙(2009)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

도가 높을수록 이상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어 위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6. 신체의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표 21>은 신체의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로서, 신체의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r=.578(p<.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신체의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

(N=579)

신체의식 화장의 심리적 효용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신체관리노력	신체의식 전체
적극적 심리변화	.456**	.371**	.381**	.554**
외모상승의 즐거움	.491**	.255**	.478**	.548**
자신감 향상	.347**	.377**	.266**	.463**
유행추구	.228**	.233**	.252**	.327**
타인에 대한 예의	.356**	.189**	.365**	.410**
자기변신의 도구	.265**	.133**	.235**	.282**
화장의 심리적 효용 전체	.470**	.358**	.442**	.578**

** $p<.01$

‘신체자신감’, ‘신체관리노력’과 ‘적극적 심리변화’의 경우 $r=.456(p<.01)$, $r=.381(p<.01)$ 로, ‘신체불만족’과 ‘자신감 향상’의 경우 $r=.377(p<.01)$ 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신체의식 전체와 ‘적극적 심리변화’의 경우

$r=.554(p<.01)$ 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신체외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요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화장을 함으로써 신체적인 매력이 높아진다고 본 Graham & Johhar(1981)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신체외식이 높으면 화장의 심리적 효용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는 신체외식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표로서, 신체외식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외식 전체의 회귀계수 $\beta=.578(p<.001)$ 로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33.4%($R^2=.334$)로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F=251.757, p<.001$).

<표 22> 신체외식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

(N=579)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화장의 심리적 효용	신체자신감	.214	.231	5.144***	R ² =.304 F=72.516***
	신체불만족	.198	.268	6.847***	
	신체관리노력	.278	.265	6.150***	
	신체외식 전체	.701	.578	15.867***	R ² =.334 F=251.757***

*** $p<.001$

신체외식의 하위유형인 ‘신체자신감’($\beta=.231, p<.001$), ‘신체불만족’ ($\beta=.268, p<.001$), ‘신체관리노력’ ($\beta=.265, p<.001$)의 경우에도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30.4%($R^2=.304$)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72.516, p<.001$). 따라서 신체의식이 높아질수록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7.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표 23>은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 23>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

(N=579)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	피부관리 지향	체중(몸매) 관리지향	성형관리 지향	헤어관리 지향	화장관리 지향	의복관리 지향	외모관리 행동전체
적극적 심리변화	.460**	.412**	.365**	.417**	.596**	.502**	.653**
외모상승의 즐거움	.455**	.325**	.405**	.419**	.608**	.528**	.651**
자신감향상	.321**	.379**	.313**	.275**	.417**	.359**	.491**
유행추구	.292**	.284**	.247**	.215**	.534**	.328**	.454**
타인에 대한 예의	.379**	.194**	.292**	.264**	.399**	.370**	.455**
자기변신의 도구	.242**	.149**	.124**	.158**	.240**	.244**	.274**
화장의 심리적 효용 전체	.482**	.402**	.395**	.390**	.648**	.524**	.676**

** $p<.01$

외모관리행동 전체와 화장의 심리적 효용 전체의 상관계수 $r=.676(p<.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체적인 외모관리행동과 ‘적극적인 심리변화’는 $r=.653(p<.01)$ 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

으며, ‘적극적 심리변화’와 ‘화장관리지향’은 $r=.596(p<.01)$ 로, ‘외모상승의 즐거움’과 ‘화장관리지향’은 $r=.608(p<.01)$ 로, ‘자신감 향상’과 ‘화장관리지향’은 $r=.417(p<.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행추구’와 ‘화장관리지향’은 $r=.534(p<.01)$ 로, ‘타인에 대한 예의’와 ‘화장관리지향’은 $r=.399(p<.01)$ 로, ‘자기변신의 도구’와 ‘의복관리지향’은 $r=.244(p<.01)$ 로 그 외의 모든 관계에서도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지향’은 ‘적극적 심리변화’와 $r=.460(p<.01)$ 로, ‘체중(몸매)관리지향’은 ‘적극적 심리변화’와 $r=.412(p<.01)$ 로 상관계수가 높았으며,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은 ‘외모상승의 즐거움’과 각각 $r=.405(p<.01)$, $r=.419(p<.01)$, $r=.608(p<.01)$, $r=.528(p<.01)$ 로 상관계수가 높았다.

이와 같이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 ‘피부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순으로 화장의 심리적 효용과 상관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모관리행동이 활발하면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24>는 외모관리행동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표이다. 전체적인 외모관리행동의 회귀계수가 $\beta=.676(p<.001)$ 로 외모관리행동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45.7%($R^2=.457$)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F=.421.800$, $p<.001$). 또한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유형 중 ‘피부관리지향’($\beta=.150$, $p<.001$), ‘성형관리지향’($\beta=.156$, $p<.001$), ‘화장관리지향’($\beta=.432$, $p<.001$), ‘의복관리지향’($\beta=.158$, $p<.001$)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48.9%($R^2=.4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

였으며($F=78.934$ $p<.001$), ‘피부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이 높아질수록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4> 외모관리행동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

(N=579)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화장의 심리적 효용	피부관리지향	.129	.150	3.843***	R ² =.489 F=78.934***
	체중(몸매)관리지향	.045	.057	1.507	
	성형관리지향	.129	.156	4.214***	
	헤어관리지향	-.041	-.048	-1.184	
	화장관리지향	.311	.432	10.450***	
	의복관리지향	.136	.158	3.874***	
	외모관리행동 전체	.777	.676	20.538***	R ² =.457 F=421.800***

*** $p<.001$

8. 자기애성향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표 25>는 자기애성향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표로, 상관계수 $r=.43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p<.01$). 특히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외모상승의 즐거움’은 $r=.410$ ($p<.01$)로 다른 요인들보다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하위요인 중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상승의 즐거움’, ‘유행추구’, ‘타인에 대한 예의’는 모두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자기애보다 상관계수가 높았다.

‘자신감 향상’, ‘자기변신의 도구’와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r=.340$ ($p<.01$), $r=.163$ ($p<.01$)로 ‘자기주도적’ 자기애보다 상관계수가 높았다. 이는 타인의 평가영역에 관심이 많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타인의존적’

자기애 성향의 특성상 화장을 통해 ‘자신감의 향상’과 ‘자기변신의 도구’와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애성향이 뚜렷하면 높은 화장의 심리적 효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25> 자기애성향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상관관계

(N=579)

자기애 화장의 심리적 효용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자기애성향 전체
적극적 심리변화	.380**	.290**	.390**
외모상승의 즐거움	.410**	.257**	.388**
자신감향상	.221**	.340**	.330**
유행추구	.271**	.242**	.299**
타인에 대한 예의	.294**	.198**	.286**
자기 변신의 도구	.148**	.163**	.183**
심리적 효용 전체	.395**	.344**	.431**

**p<.01

<표 26>은 자기애성향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자기애성향 전체의 회귀계수 $\beta = .431$ ($p < .001$)로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18.6%($R^2 = .186$)로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F = 114.781$, $p < .001$).

자기애성향의 하위유형인 ‘자기주도적’ 자기애($\beta = .301$, $p < .001$), ‘타인의존적’ 자기애($\beta = .205$, $p < .001$)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타인의존적’ 자기애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18.9%($R^2 = .189$)로 본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F=58.476$, $p<.001$).

<표 26> 자기에성향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

(N=579)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화장의 심리적 효용	자기주도적	.325	.301	6.627***	R ² =.189
	타인의존적	.211	.205	4.521***	F=58.476***
	자기에성향 전체	.531	.431	10.714***	R ² =.186 F=114.781***

*** $p<.001$

따라서 자기에성향이 높을수록 특히 ‘자기주도적’ 자기에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화장을 하는 행위는 이상적인 자기추구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유창조, 홍성태, 정혜은, 2006).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애성향과 신체외식이 외모관리 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성들의 자기애성향에 대해 조사하여 신체외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애성향 및 신체외식과 외모관리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총 579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적 변인과 행복도에 따른 자기애성향, 신체외식, 외모관리 행동,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차이

첫째,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경우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애성향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인 경우가 자기애성향이 높았고, 한 달에 소요되는 외모관리 비용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 모두 70만원 초과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기주도적’ 자기애자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계층은 ‘상’에 속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20대와 미혼이 신체외식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자신감’, ‘신체불만족’, ‘신체관리노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 달에 소요되는 외모관리 비

용은 ‘신체자신감’, ‘신체관리노력’은 모두 70만원 초과가 가장 많았고, 행복감이 낮을수록 ‘신체관리노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이 ‘상’에 속하는 집단이 ‘신체관리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모든 연령대가 활발한 외모관리행동을 보였고 특히 20대는 ‘성형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이, 40대는 ‘피부관리지향’이 가장 높고 ‘헤어관리지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혼은 ‘의복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기혼은 ‘피부관리지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 달에 소요되는 외모관리 비용은 70만원 초과가 가장 많았으며 ‘체중(몸매)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은 외모관리비용이 70만원 초과인 경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계층이 ‘상’에 속하는 집단이 외모관리행동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화장의 심리적 효용을 살펴보면, 20대가 ‘외모상승의 즐거움’으로, 30, 50대는 ‘타인에 대한 예의’가 높았다. 한 달에 소요되는 외모관리 비용은 70만원 초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의 ‘상’에 속하는 집단의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게 나타났다.

2) 여성들의 자기애성향

여성들의 자기애성향을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타인의존적’ 자기애보다 높았다.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혹시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강한 자기확신을 보이므로 보다 긍정적인 자기애성향을 가진 ‘자기주도적’ 성향자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 있다.

3) 자기에성향과 신체의식의 관계

자기에성향과 신체의식의 관계를 보면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자기에는 모두 ‘신체자신감’과 상관이 높았다. ‘신체불만족’은 ‘타인의존적’과, ‘신체관리노력’은 ‘자기주도적’ 자기에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자기에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의식도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4) 자기에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의 관계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은 모두 ‘의복관리지향’과 가장 정적 상관이 높았으며, ‘자기주도적’, ‘타인의존적’ 자기에보다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외모에 자신감있고 관리를 통해 주목받고 싶어하는 ‘자기주도적’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의 관계에서는 ‘신체자신감’과 ‘의복관리지향’, ‘신체불만족’과 ‘체중(몸매)관리지향’이, ‘신체관리노력’과 ‘성형관리지향’이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는 신체에 자신감이 많을수록 의복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었으며 ‘신체불만족’의 경우 대부분은 ‘체중(몸매)관리지향’과, ‘신체관리노력’에서는 적극적 외모관리행동인 ‘성형관리지향’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이식이 높아질수록 외모관리행동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5) 신체이식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신체의식 전체와 ‘적극적 심리변화’는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신체자신

감’, ‘신체관리노력’은 ‘외모상승의 즐거움’과, ‘신체불만족’은 ‘자신감 향상’의 도구로서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아짐을 알 수 있어 신체 의식이 뚜렷하면 높은 화장의 심리적 효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외모관리행동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피부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의복관리지향’이 심리적 효용의 유의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관리행동’과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상승의 즐거움’, ‘자신감 향상’, ‘유행추구’, ‘타인에 대한 예의’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의복관리행동’은 ‘자기변신의 도구’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체중관리, 헤어관리를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이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유의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자기애성향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외모상승의 즐거움’, ‘적극적 심리변화’, ‘외모상승의 즐거움’, ‘타인에 대한 예의’가 높았다.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자신감 향상’과 상관이 높았다. 따라서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을수록 자기애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연령이 낮고 미혼이 자기애성향이 뚜렷하며, 외모관리비용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록 신체 의식이 뚜렷하고 신체를 관리하려는 노력도 높아져 피부관리, 화장관리, 의복관리, 성형 및 체중관리도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자기에성향과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의 자기에성향은 외모관리 비용에도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성격 특질로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기에의 사회에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자기에성향을 연구하여 뷰티산업 관련 업체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서울·경기와 같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며,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도 임의추출을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노화와 주름관리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의 여성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자기에 측정도구에 ‘자기주도적’ 자기에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에 요인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최근 ‘자기주도적’ 자기에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에 요인의 복합적인 자기에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분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외모관리행동의 하위변인 중 ‘화장관리행동’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에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결과적으로 유의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하위변인이 심층적으로 연구,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는 복합적 자기애 현상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위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자기애 척도가 개발되어 자기애의 사회적응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면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그릇된 신체의식의 병폐를 심층 분석하고 기존의 정신병질 측정과 평가도구 외에 매개요인을 분석하여 자기애와 신체의식의 건강한 유기적 관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탐미적인 자기신체 도취의 자기애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외모관리유형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화장품 구매 등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자기중심적 소비경향에 대한 정성(定性)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화장 후 사회적, 심리적 기대효과 및 효용은 외모변화의 즐거움, 자신감의 향상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복지시설의 노인, 부랑인, 우울증 환자 등에게 화장교육을 통해 여성성을 회복하고 자기성취 욕구를 실현시키는 연구 분야로 제시하기 위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현 (2000). *다이어트 심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다이어트 동기, 다이어트 식품 소비 및 심리적 경험*.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4), pp.969-990.
- 강영숙 (2007). *대학생들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직업선택 시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강은영 (2002). *자기주도적 자기에 및 타인의존적 자기에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강은영, 이영호 (2006). 이차원 자기에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자기주도적 자기에 및 타인의존적 자기에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5(2), pp.397-415.
- 고석주, 정진경 (1992).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회지*, 524(8), pp.33-70.
- 구자연, 하은혜 (2010).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외모 척도. (K-OBC-Y)의 타당화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pp. 141-158.
- 권석만, 한수정 (2010). 자기에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pp.1135-1143.
- 권은미 (2006).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지: 일반, 28(3), pp.627-642.

권현숙 (2001). 여성이 화장이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길주현, 오경자 (2008). 자기에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p.920.

김경신, 강정수, 김병수 (201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2).

김기범, 차영란 (2006).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美)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pp.107-123.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pp.99-108.

김성희 (2009). 여성의 연령별 화장 및 미용성형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서대 디자인 & IT 전문대학원.

김양하, 김기범, 차영란 (2007). 화장의 자의식적 특성분석과 화장마음의 사회인지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pp.213-229.

김유성 (2011). 자기에성향별 신체매력성 지각이 미용추구혜택 및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김윤 (2007).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 의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종숙 (1997). 현대사회와 나르시시즘. 수원대학교 논문집 15권. pp.129-142.

김종욱 (2010). 중년여성의 자기에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김주원 (2008). 여성신체와 미의 남용·포스트페미니즘과 나르시시즘 미학. 미학, 55, pp.81-118.

- 김해정 (2008). 자기애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가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현정 (2009).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희숙 (1996). 20세기 화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중스타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2(1), pp.27-52.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24(2), pp.255-266.
- 박수진 (2006). 남성의 패션, 헤어스타일, 피부, 신체이미지에 관한 유형 분석: 내용분석, 설문지법, Q 방법을 통합하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박연옥 (2004).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 박은아 (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보여주기'의 미학. 한국심리학회지, 4(2), pp.105-127.
- 박은정, 정명선 (2010).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8(4), pp.717-730.
- 박임마누엘 (2008). 완벽주의와 사회문화적 외모가치 기준의 내면화 및 수치심과 신체존중감 그리고 섭식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주현 (2010).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모관리행동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찬석 (2001).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혜진 (2003). *자기애, 자기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 수준 및 분노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27(4), p.1004.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pp.63-81.

신동주, 정남운 (2007). 여대생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2(1), pp.77-94.

안나영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창조, 홍성태, 정혜은 (2006). 여성의 화장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화장품 소비행위에 대한 심층연구. *경영학연구*, 35(1), pp.21-49.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 헤어, 피부, 화장,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윤정혜 (2009). 자기애 측정도구(ISP) 타당화 연구 :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pp.151-172.

이명주 (2010). *생활습관 및 두피·모발·피부관리 습관과 상태 비교 연구*:

미국과 한국의 일정지역 여고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이명희, 이은실 (199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 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p.1074.

이상미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이영분 (2011). *중년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이유종 (2010).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매력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이윤정 (2004). 신체 통제에 대한 신념이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pp.974-982.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pp.651-670.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26(2), pp.463-477.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화순, 황춘섭 (2002).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2(8), pp.137-149.

이화정 (2009). *자기지각과 이상섭식행동의 구조 모형*. 박사학위논문, 세종대

학교 대학원.

- 이현옥, 구양숙 (2009).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2), pp.271-277.
- 이혜정, 오인영 (2010). 화장관심도와 정보탐색이 여고생의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1), pp.65-84.
- 임미연 (2005). 화장행동과 헤어칼라 및 자의식이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pp.121-135.
- 임인숙 (2004).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 : 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지*, 38(2), pp.165-187.
- 전현진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및 신체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전현진, 정명선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3), p.741.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2), pp.221-235.
- 정용민 (2011). 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사회적 체형 불안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3, pp.959-971.
- 정윤희 (2007).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자아개념에 따른 패션행동과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정주원 (2006). 몸의 소비문화적 의미와 현상에 대한 고찰. *소비문화연구*, 9(1), pp. 83-101.

- 정지영 (2003). 성격평가질문지(PAI)를 이용한 정형외과 입원환자의 반응 특성.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 조기여 (1997). 자기효능감, 퍼스널 스페이스, 의복접근도, 화장접근도와 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조수진 (2007). *Active aging*세대 여성의 미용 관심도에 따른 화장품 사용 행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 조영미 (2009). 중년남성의 자기효능감, 인지연령 및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수경 (2007).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최수경, 강경자 (2006). 신체만족도와 화장태도에 따른 성인 여성의 메이크업 욕구와 화장 행동에 따른 연구. *복식문화연구*, 14(3), pp.497-513.
-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29(4), p.1136.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 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혜림 (2003).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황진숙 (1998). The Effects of Body Image on Clothing Attitude, Fashion Innovativeness, and Shopping in American Female College Students. *한국의류학회지*, 81, pp.1069-1078.
- Adams, G. R. (1977).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 Toward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beauty. *Human Development*, 20, pp.217-239.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 J Psychiatry*, 139(1), pp.12-20.
- Aune, R. K. & Aune, K. S. (1994). The influence of culture, gender, and relational stauts on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Cross-Culturel Psychology*, 25(2), pp.258-272.
- Bartky, S. L. (1998). *Foucault, femininity, and the modernization of patrlarchal power*. In I. Diamond & L. Quinby (Eds), *Feminism and Foucault: Reflections on resistance*, Boston :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pp.61-86.
- Bloch, P. & Richins, M. (1992). You look "Marvelous" :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9(1), pp.3-15.
- Cash, T. F. (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 Aesthetics, attributes, and images. In T. F. Cash & T. Pruzinsky (Ed.)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sh, T. F. & Hicks, K. L. (1990). Being fat versus thinking fat : Relationships with body image, eating behaviorism and well-be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2), pp.327-341.
- Emmons, R. A. (1984).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nsation seeking. *Psychological Reports*, 48, pp.247-250.
- Fallon, A. E. & Rozin, P. (1990).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1), pp.102-105.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Fromm (2009). *Erich Selffishness and Self-love*. NewYork : Louisville.

- Fukunish, I. & Nakamura, Z. Q. (1996). Relationship, between Type A behavior, Narcissism and mental closeness for college students in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sychological Reports*, 78, pp.939-944.
- Graham, J. & Furnham, A. (1981a). Sexual Difference in Attractiveness Rating or Day/ Night Cosmetic Use. *Cosmetic Technology*, 3, pp.36-42.
- Graham, J. A. & Jouhar, A. J. (1981b). The Effect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pp.199-210.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Pub. co.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 Aronson.
-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hut, H. (1977).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 Interpersonal Universities Press.
- Kwon, Y. H. (1992). Body consciousness, self-consciousness and women's attitudes toward clothing practic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0(4), pp.295-307.
- Lasch, C. L.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 Norton.
- Lennon, S. J. & Lillethun A. (1999). Attitudes Toward Social Comparison as a Function of Self-Esteem: Idealized Appearance

and Body Imag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7, pp.379-405.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4).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pp.191-202.

Mckinley, N. M. & Hyde, J. S. (1996a). Attitude toward social comparison as function of self-esteem: idealized appearance and body imag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7(4), pp.379-405.

Mckinley, N. M. & Hyde, J. S. (1996b).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pp.181-215.

Miller, L. C., Murphy, R. & Buss, A. H. (1981). Conscious of body : Private and publ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pp.397-406.

Noll, S. & Fredrickson, B.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pp.623-636.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pp.421-438.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pp.159-162.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0, p.590.
- Raskin, R. & Novacek, J. (1988).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pp.66-80.
- Roberts, R., Callow N., Hardy L., Woodman T. & Thomas, L. (2010). Interactive Effects of Different Visual Imagery Perspectives and Narcissism on Motor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 pp.499-517.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pp.379-391.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e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pp.5-30. New York: Hemisphere.
- Spitzack, C. (1990). *Confessing excess: Women and the politics of body reduction*,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aylor, S. E. (1989). *Positive illusions: Creative self-deception and the healthy mind*. New York: Basic Books.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pp.590-597.
- 大坊郁夫, 神山 (2005). 의복과 화장의 사회심리학. (조기여 역). 서울: 동서교류, p.35.

大坊郁夫, 神山 (1996).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東京 : 北大路書房.
pp.30-40.

松井 豊 (1986). 化粧の性格 純摩武俊 (編) パッケージ性格の心理 5.
東京 : プレーン出版 pp.55-56.

<Internet site>

김환영(2011. 1. 9). 성형수술 연 36만건 한국은 '성형G7'. 중앙sunday.
자료검색일 2011. 6. 30, 자료출처 <http://sunday.joins.com>.

토론토 UPI 연합 (1996. 8. 14). 美 뉴욕주립大 교수 논문. 경향신문. 자료
검색일 2011. 2. 14, 자료출처 <http://newslibrary.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_____, <http://100.naver.com/100.nhn?docid=84787>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ABSTRACT

A Study on Relationship of Narcissistic Trait, Body Consciousn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Psychological Utility in Make-up

Seo, Eun-Hey,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clarify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makeup psychology utility behavior according to women's narcissistic trait and body consciousness,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 among narcissistic trait,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inquired into women's narcissistic trait, clarified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trait and body consciousness, and closel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narcissistic trait and body consciousn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pecific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makeup psychology utility by narcissistic trait. Thus, the aim is to form positive body consciousness

and to sugges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in beauty-related companies through these people's cosmetic management behavior.

A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 survey research metho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otally 5 parts in narcissistic trait, body consciousn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psychological utility in make-up, and demographic variable. A measurement method is 5-point Likert scale. The total item number was composed of 110 questions.

Research subjects were surveyed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targeting women aged 20-over 50 who live in Seoul and Gyeonggi. Narcissistic trait was used 2 factors of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other-dependent narcissism. Body consciousness was used 3 factors of body surveillance type, body shame typ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ype. Cosmetic management behavior was used 6 factors of skin care type, weight (figure shape) control type, surgery management type, hair care type, makeup management type, and clothing management type. The makeup psychology utility behavior was used 6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 pleasure of a rise in appearance, improvement in self-confidence, expression of self-value, etiquette for other person, and tool of self-transformation. Demographic variables were age, marital status, income, academic background, job, appearance management cost, happiness level, social class in the survey subjects. The survey subjects were targeted 210 people for the 20s, 135 people for the 30s, 120 people for the 40s, and

114 people for the 50s.

Data collection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after evaluating understanding level and validity of questionnaire items through the primary questionnaire survey. The secondary questionnaire survey was widely distributed totally 600 copies from August 22, 2011 to September 9. Totally 579 copies except 21 copies with insincere and incomplete contents among them were processed and used in data analysis. A method of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factor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amining narcissistic trait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variable, the narcissistic trait was high in low age and the unmarried. The narcissistic trait ha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ppearance management cost.

Examining body consciousness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variable, 'body self-confidence',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management effort' were high in their 20s and the unmarried. The lower happiness led even to the lower 'body management effort'. The appearance management cost, which is required for one month, was the largest in 700,000 won~1,000,000 won. The excess in more than 1,000,000 won was the largest in 'body management effort'.

Examining body consciousness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variable, it was indicated to be high in 'plastic management orientation,' 'clothing management orientation,' and 'weight (figure) management orientation' for their 20s, in 'clothing management orientation' and 'plastic management orientation', for the unmarried, and in 'skin care orientation' for the married. 'Weight (figure) management orientation,' 'plastic management orientation,' 'hair care orientation,' 'make-up care orientation' and 'clothing management orientation' could be known to be indicated highly when the appearance management cost is more than 700,000 won

Examining psychological utility of make-up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variable, it was high in 'pleasure of enhancement in appearance' for their 20s and in 'etiquette for other person' in the 30s and 50s.

It is important to grasp difference between the positive aspect of having affirmative life attitude and the pathological aspect such as sense of entitlement and self-conceit.

Second, examining women's narcissistic trait, the self-initiative narcissism can be known to be higher than other-dependent narcissism. As for this, people with high self-initiative narcissism have the higher self-esteem and positive self-concept than people with other-dependent narcissism. People with other-dependent narcissism have characteristic sensitive to other person's evaluation on oneself, and are low in positive evaluation on oneself and fail to be satisfied with oneself. Accordingly, what there are many people with low age

who have self-initiative narcissism of having positive self-initiative narcissism can be considered to be desirable.

Third, both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other-dependent narcissism were high in body surveillance type. There was the higher correlation in case of group with self-initiative narcissism. Also,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in the group with other-dependent narcissism as for a case of body shame and in the group with self-initiative narcissism as for a cas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ype. Thus, it was indicated that the higher self-initiative narcissism leads even to the higher body consciousness. However, the numerical value of being dissatisfied with own body could be known to be high only in case of other-dependent narcissism.

Fourth, the group with self-initiative narcissism had the higher correlation in all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han other-dependent narcissism. Thus, both the group with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the group with other-dependent narcissism showed the highest numerical value in the clothing management. Examining relationship between body consciousn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correlation was high with clothing management in body surveillance type, with weight (figure shape) control in the body shame type, and with surgery management i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ype. A case of body shame has mostly relationship with weigh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ype can be analyzed to be concentrated an interest in plastic surgery, which is more positiv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Fifth, the numerical value of recognizing makeup was the highest as pleasure of a rise in appearance as for body surveillance typ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type and as a tool of improvement in self-confidence as for body shame type. Accordingly, it can be known that the high body consciousness leads to showing psychology utility behavior.

Sixth, amo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having influence upon makeup psychology utility behavior, the skin management orientation, surgery management orientation, makeup management orientation, and clothing management orientation were indicated to be major influential factors. Makeup management leads to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 pleasure of a rise in appearance, improvement in self-confidence, pursuit for fashion, and keeping etiquette for other person. As a tool of self-transformation, there was correlation even with clothing management behavior. It can be known that the highe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leads to being shown the higher psychology utility behavior. All the management appearance behaviors except weight (figure shape) control and hair care can be known to be significant influential factors upon makeup psychology utility behavior.

Seventh, there was high correlation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hange, pleasure of a rise in appearance, and etiquette for other person as for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with improvement in self-confidence as for other-dependent narcissism. Accordingly, it can be analyzed that the more active makeup psychology utility behavior leads to the higher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to an effort to make

more positive life.

Synthetically seeing the above findings, it could be known that the lower age leads to the clearer self-initiative narcissism in the unmarried than the married and to having the gradually larger self-initiative narcissism. People with self-initiative narcissism, who do positive management behavior with having self-confidence in own appearance, are being shown more in the 20s-30s with low age. These people were revealed to expend generously even the cost of being required for appearance management. Also, the lower age led to the clearer body consciousness in oneself and even to the higher effort of trying to manage the body. The surgery and weight (figure shape) control, which are positive appearance types, could be known to be performed actively as well as skin care, makeup management, and clothing management. It was indicated that the higher body consciousness leads to what both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the makeup psychology utility behavior have positive influence. Thus, self-initiative narcissism can be considered to be major characteristic property in body consciousn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psychology utility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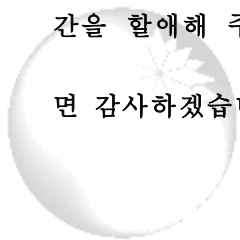
Accordingly, thinking possibility that modernly many self-initiative narcissists are likely formed with complex characteristics, it grasps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adaptive characteristic and non-adaptive and pathological propensity. Thus, it is excellent in body consciousness and is active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this due to characteristics such as confidence in self-value, being sensitive to other people's evaluation, and preferring to be noted oneself. It surveys diverse demographic variables and psychology utility characteristics in these narcissists. A research is grown between two spheres in the psychology field except the traditional sphere of the beauty-related sphere. It is thought to be likely able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a research of beauty marketing by understanding a human being's basic psychology.

<부록> 설문지

설문지

본 설문은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응답내용도 비밀보장이 유지되오니 솔직하고 사례 깊은 답변을 해주시면 매우 가치있고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1 . 8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연구자 서 은혜

지도교수 김 경희

※ 다음 각 문항은 평소에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한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무슨 일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유력한(유능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책임 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해 낸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주장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쁜 적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각 문항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한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옷이 나에게 편안한가 보다 내게 잘 어울리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매우 보잘 것 없이 느껴질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화장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외모가 최고로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자책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사람들이 나의 실제 체중을 아는 것이 꺼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체중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체사이즈가 아니라 부끄럽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미용성형은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때 옷맵시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해 미용성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외모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가꾸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체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얼굴 혹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각 문항은 평소에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한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클렌징제품이나 목욕용품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음식은 안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성형수술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두피·모발관리를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화장을 하면서 자기만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옷을 입을 때 의복분위기에 맞는 패션소품(모자,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을 반드시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옷은 계절별로 꼭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에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전신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스포츠센터에서 몸매관리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헤어 영양제품(헤어 에센스, 헤어 영양크림 등)을 자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외출해서도 화장을 고치는 등 화장에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17.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세안 후 기초제품(스킨, 로션 등)을 반드시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몸매관리를 위해 제형보정용 속옷(브래지어, 거들)을 꼭 입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나는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미용성형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모델이나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머릿결을 잘 관리하는 것은 얼굴을 가꾸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잡지를 주의깊게 본 후 화장법을 따라하거나 응용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인기있는 브랜드의 의류제품을 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9.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은 한번쯤 사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0. 만나는 사람이나 외출하는 장소에 따라 화장방법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각 문항은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 대한 평소의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한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장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 화장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①	②	③	④	⑤
3. 화장을 하면 창조의 즐거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화장을 하면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화장을 하지 않으면 초라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6.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화장품을 살 때 최근 유행경향이 어떤지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8. 유행하는 화장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화장은 대인관계를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화장을 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인 예의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1. 눈에 띄는 두드러진 화장은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화장을 하면 안심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화장을 하면 자신의 인상이 바뀌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화장을 하면 예뻐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아파보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화장을 하지 않으면 표정이 굳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화장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화장을 하면 화려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9. 화장을 하면 기분전환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화장을 하면 다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화장을 하면 목소리의 톤이 밝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22. 화장을 하면 표정이 밝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23. 화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소극적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유행하는 컬러의 립스틱은 사계 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화장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화장을 하면 어른스러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7. 화장을 하면 밖으로 나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8. 화장이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장행위 그 자체가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0. 화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신있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주변사람들에게 화장법을 조언해 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2. 화장을 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실례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화장한 모습은 성적 매력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34. 화장을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각 문항은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시고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나이는? 만_____세
2.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 가정 전체의 평균 한달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200 만 원 ③ 200만 원~300만 원
④ 300만원~400 만원 ⑤ 400만 원~500 만 원 ⑥ 500만 원 초과
4. 귀하의 학력은?
① 중학교 졸 ② 고등학교 졸 ③ 대학 재학 ④ 대학 졸 ⑤ 대학원 재학 ⑥ 대학원 졸
5.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④ 판매직 ⑤ 관리직 ⑥ 학생 ⑦ 무직
6. 귀하의 한 달 평균 외모관리 비용 (의복, 액세서리 구입, 화장품 구입, 성형수술비, 피부관리비, 미용실 이용비, 체형관리 비용, 운동비 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5만원 미만 ② 5~10만원 미만 ③ 10~20만원 미만 ④ 20~30만원 미만
⑤ 30~50만원 미만 ⑥ 50~70만원 미만 ⑦ 70~100만원 미만 ⑧ 100만원 초과
7. 귀하는 자신이 어떤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下) ② 중하(中下) ③ 중(中) ④ 중상(中上) ⑤ 상(上)

※ 다음 문항은 **행복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행복한 편이다
⑤ 매우 행복하다

- 감사합니다 -